트루먼 해리스: 콘체르티노와 실내악을 위한 작품집 – 겨울날 따뜻한 햇빛

앨리스 K. 웨인렙(플루트), 로렐 B. 올슨(호른), 트루먼 해리스(바순), 이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실비아 알리메나(지휘)

겨울에 꾸는 봄꿈 인상

미국의 작곡가 트루먼 해리스의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트루먼 해리스는 본 음반에서 연주를 맡고 있는 이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및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NSO) 등에서 바순 연주자로 활약했다. 독창적인 악기 편성, 재즈와 왈츠의 리듬 그리고 낭만적인 색채의 매혹적인 어울림이 담긴 '두 대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보여주듯 그의 실내악 작품은 연주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한껏 살리고 있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58 **[추천음반]**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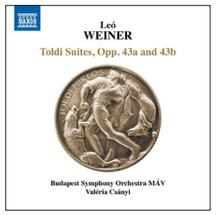
코플랜드: 발레음악 작품집(빌리 더 키즈 & 크로크)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완전판으로 감상하는 코플랜드 발레곡의 묘미, 레퍼런스급 연주
8559862

빅토리아 본드: 계시의 도구 & 프레스코벽화와 재 & 레오폴드 블룸의 귀향 & 이진법
루퍼스 뮬러(테너), 올가 비노쿠르 & 제니 린(피아노), 시카고 프로 무지카(연주)
텍스트와 이미지 – 시대의 인상을 아우른 은유
8559864

피에르 아테냥: 하프시코드 작품집
글렌 윌슨(연주)
16세기 프랑스 건반 음악의 한 장면, 글렌 윌슨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음반
8572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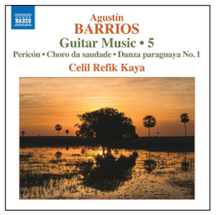
라이네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마르틴 루멜(첼로), 로날드 크뤼거(피아노)
고전적 낭만주의자, 라이네케 최고의 실내악 작품들
8573727

요제프 마르크스: 관현악 작품 3집
안젤라–마리아 블라시(소프라노),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스티븐 슬로안(지휘)
텍스트와 목소리, 관현악의 절묘한 어울림
8573833



레오 베이네르: 교향시 《톨디》
MAV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발레리아 차니(지휘)
독일 낭만주의에 헝가리 전통을 접목한 대작, 호쾌하고 역동적인 질주를 살린 호연
8573847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엔리코 딘도(첼로),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봄꽃의 환희, 봄비의 우수 – 첼로와 피아노가 빚는 정교한 서정
8573881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 기타 작품 5집
세릴 레픽 카야(연주)
파라과이 정글에서 온 기타의 파가니니, 일생에 걸친 기교와 서정의 향연
8573898

마가리카 그리츠코바: 러시아 가곡 리사이틀
마가리타 그리츠코바(메조소프라노), 마리아 프린츠(피아노)
러시아의 잠 못 드는 밤
8573908

도니제티: 저녁기도 시편성가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소프라노), 요한나 크뢰델(알토), 마르쿠스 쉐퍼(테너), 다니엘 오초아(베이스), 자몬 마이어 합창단(합창), 콘체르토 드 바수스(연주), 프란츠 하우크(지휘)
화려하면서도 오롯한 선율과 너른 스케일, 한층 호소력을 갖는 기도
8573910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9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9호 | April 2019

***Key Issue**

C Major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2집 실황** DVD + BD

Naxos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 바이올린 협주곡** CD

***Cover Story**

세상의 모든 음악 열 번째 **'저녁이 꾸는 꿈'** CD

Key Issue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2집 실황 DVD + BD..... 3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 바이올린 협주곡 CD..... 40

Cover Story

세상의 모든 음악 열 번째 '저녁이 꾸는 꿈' CD..... 4-5

CD

Accentus 6
Alba 7
Aurora Norwegian 7
Austrian Grammophone 8
Bach-Stiftung 8
Belvedere 9
Berliner Philharmoniker 9-12
BR Klassik 13
Capriccio 13
Dacapo 14
Delphian 14
Dynamic 15
Farao 16
Gramola 16-17
Grand Piano 17-18
IBS Classical 18
ICA Classical 19
LCS Hires 19
MD+G 20
Naxos 20-31
Ondine 32-33
Orchid Classics 33
Our Recordings 34
Philharmonia Zurich 34
Resonus 35
SDG 36
Silk Road 36-37
Simax 37
Solo Musica 38
Steinway & Sons 38
Tocatta Classics 39
UR Text 39

DVD & Blu-ray & 4K

C Major **[4K]** 41
Accentus 42-43
Arthaus 44-46
BelAir 47
C Major 48-53
Dynamic 54-55
EuroArts 56-59
Naxos 60-62
OpusArte 63-65

LP

RCO Live 66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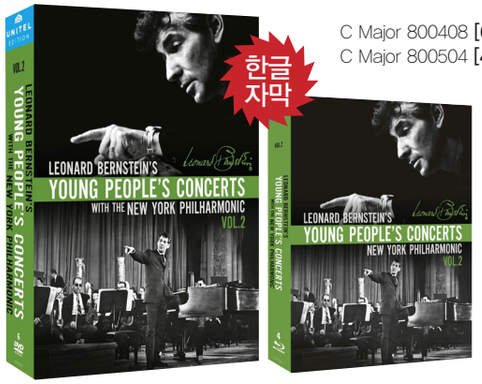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 아울로스 사무실 이전 안내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04782)
#1404~1405, East Building, Hyundai Terrace Tower
Yeonmujang 5Ga Gil, 7 Seongdong-Gu, Seoul
South Korea **Post code 04782**

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58~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2집 (17편 수록)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뉴욕 필은 해설이 있는 젊은이들의 음악회를 진행했고 CBS를 통해 52편의 프로그램이 제작 · 방영되었다. 이 영상물은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18년 발매된 1집(Cmajor 800304)의 뒤를 잇는 2집으로 1960~1970년 17편의 영상(흑백)이 수록되어 있다. '젊은이들의콘서트'이지만, 번스타인의 해설과 유명 작품 연주를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기에 초심자에게도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특히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코플랜드 등 그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테마를 통해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도 접할 수 있다. 해설지(25쪽 분량/영 · 독 · 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C Major 800408 **[6DVDs]**
C Major 800504 **[4BDs]**

[핫, 추천영상]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에겐 유익하다.
초심자에겐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58~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2집(17편 수록)
번스타인(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젊은 연주자' 편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제임스 버스웰(바이올린) 등 출연

[보조자료]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1918~1990)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여러 협연자들과 함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했다. CBS를 통해 제작 · 방영된 52편의 프로그램은 번스타인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지휘자'(뉴욕 타임스)로 만들고 명성을 알리는 데에 일조했다. 한국에도 소개되어 방영되었을 정도니, TV 역사에서 이토록 예술과 미디어가 절묘하게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는 또 없을 것이다.

이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물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던 2018년에 씨 메이저(C Major)에 의해 빛을 보았다. 이 영상물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영상물로 4장의 블루레이(BD)에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되었던 17편의 공연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흑백 영상이며, BD 1 · 2 · 3은 번스타인이 직접 해설과 지휘를 맡고, BD4는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등장하며 번스타인을 비롯하여 여러 지휘자들과 자신의 실력을 자랑한다. 젊은 날,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만날 수 있다. '젊은이들의 콘서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명 작품을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클래식 초심자에게도 제 격이다. 특히 소나타 형식, 선법 등의 음악이론은 물론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코플랜드 등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통해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본 영상물만의 특징이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앞서 발매된 1집이 전부 흑백 필름인 것과 달리 2집은 중간마다 컬럼필름이 들어가 있어 감회가 색다르게 다가온다.

'세상의 모든 음악'의 열 번째 앨범 – 〈**저녁이 꾸는 꿈**〉 CD

누구에게나 꿈결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셔 이마를 살짝 찡그리는 당신을 보는 순간, 어제까지 없던 꽃이 담벼락에 기대어 피어난 것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소설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발견하고, 그 페이지의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접는 순간,

아무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라디오에서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할 수만 있다면 매일 저녁 당신에게 이런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일곱 해 동안 저녁마다 꾸었던 꿈을 빚어 열 번째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만든 음반이 늘 그랬듯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이, 노르웨이의 숲이,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소식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속삭임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같은 꿈을 오랫동안 함께 꾸는 존재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음반이 그런 친구가 되어 당신과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ulos Media AMC2–2173
세상의 모든 음악 10집
〈저녁이 꾸는 꿈〉

한 청취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9시간의 긴 수술을 마친 어느 늦가을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며 누운 채로 소리 없이 울었다는 내용의 편지. 마음 한켠이 금세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에는 매일 같이 이 한마디 인사로 하루를 보상받는다는 청취자들의 사연이 도착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보듬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일, '세상의 모든 음악'이 되새기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의 열 번째 앨범 '저녁이 꾸는 꿈'을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난 17년간 매일 매일 달라지는 공기와 느낌을 담아 채워 나갔던 무수한 선곡표들을 이 한 장의 음반에 담고 싶었습니다. 열 번째 음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꾸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음원이 CD를 잠식해 버린 요즘, 또 한 장의 음반을 만드는 일에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부터 라디오는 더 라디오다워졌듯이, 디지털 음원 시대에 CD를 듣는 일은 좋아하는 음악을 위한 우아한 의식과 같은 것이리라 믿습니다.

이 음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아울로스 미디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인 진행자 전기현님, 김미라 작가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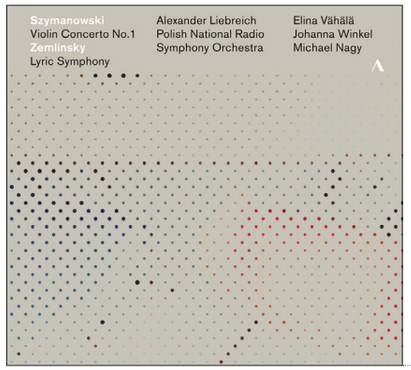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 클래식FM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로듀서 안종호

[수록곡내용]

01 I Love You / What a Wonderful World - Conspirare Choir
02 Planchers fragiles - Daniel Seff
03 Psyche - Chris Spheeris
04 Tango to Evora - Loreena McKennitt
05 Corsica - Petru Guelfucci
06 For Dori - Stamatis Spanoudakis
07 Puerto Montt - Patricia Salas
08 Virtue - Jesse Cook
09 Chaim Pshutim - The Idan Raichel Project (voc : Amir Dadon)
10 The South Wind - Joanie Madden
11 Jose - Dolores Keane
12 Golden Girl - Sigmund Groven
13 Blott En Dag - Aage Kvalvein (vc) & Iver Kleive (pf)
14 사랑하기 때문에 – 이상재
15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 Bill Douglas & Ars Nova Singers
16 Return to Love - Kevin Kern (cl : Luis Baez)

Accentus www.accent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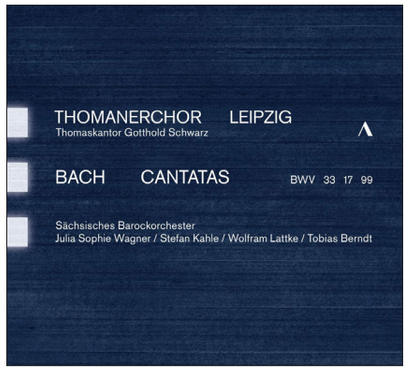
ACC30470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첸린스키: 서정 교향곡

엘리나 배핼래(바이올린), 요하나 빙켈(소프라노), 미하엘 나기(바리톤),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알렉산더 리브라이히(지휘)

말기 낭만의 도전적이고 극적인 표현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두 보석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는 파격적인 표현 양식을 받아들인데 반해, 동시대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첸린스키는 바그너의 풍부한 화음과 말러의 투명한 관현악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매우 극적이라는 말기 낭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배핼래는 내한연주한 적이 있는 핀란드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에서 요정과 같이 유영하는 관능적 아름다움을 들려주며, 첸린스키의 〈서정 교향곡〉에서 두 성악가는 서정적인 측면과 극적인 측면을 고루 갖춰 이 감춰진 보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ACC30471

바흐: 칸타타 17, 33, 99번

율리아 조피 바그너(소프라노), 슈테판 칼레(알토), 볼프람 라트케(테너), 토비아스 베른트(베이스), 라이프치히 토마너코어, 작센 바로크 오케스트라, 고톨트 슈바르츠(지휘)

말기 낭만의 도전적이고 극적인 표현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두 보석

바흐가 재직했던 성도마 교회 합창단(토마너코어)의 연주는 바흐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며, 이 단체의 바흐 녹음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이 합창단의 음악감독은 고톨트 슈바르츠로, 2016년부터 이 직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 녹음한 이 음반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토마너코어와 함께 했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대신 작센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는데, 깔끔한 미성과 가벼운 음량, 절제된 다이나믹으로 노래한 합창단 및 독창자의 음성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Alba www.alba.fi

ABCD434 [SACD]

멘델스존: 첼로 소나타 1, 2번, 협주적 변주곡, 알붐블라트, 무언가

과달루페 로페스 이니게스(첼로), 올가 안드류시첸코(피아노)

멘델스존이 생존 당시에 사용된 악기로 연주한 멘델스존의 첼로 작품

멘델스존은 10대부터 작곡가로서 널리 인정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그는 교향곡과 협주곡 등 몇 곡만이 주로 연주되고 있는데, 그만큼 찾아야 할 잊힌 보물들이 가득하다. 이 음반에 녹음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 바로 그러한 보물들이다. 〈첼로 소나타 2번〉은 첼로의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선율, 충분한 극적 표현 등으로 첼리스트가 사랑하는 레퍼토리로 즐겨 연주되고 있으며, 〈첼로 소나타 1번〉과 〈협주적 변주곡〉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음반은 특히 멘델스존이 생존 당시에 사용된 악기로 연주하여 더욱 뜻깊다.

Aurora Norwegian www.musicnorway.no

ACD5102

글로르비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두 노르웨이인, 술집의 장면, 매우 이른 아침 블루스

페르 아르네 글로르비겐(반도네온), 안드레아스 브란텔리드(첼로), 노르웨이 첸버 오케스트라

현대 유럽인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탱고와 반도네온 음악

페르 아르네 글로르비겐은 25세 때 반도네온을 접하게 된 이후, 이 악기의 매력에 빠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2년간 반도네온과 탱고를 배웠다. 이후 그는 여러 작곡가들로부터 헌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반도네온 연주자로서 활동했으며, 작곡가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다. 반도네온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두 노르웨이인〉은 탱고를 그만의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했으며, 〈술집의 장면〉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겪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매우 이른 아침 블루스〉에서는 글로르비겐이 하모니카 연주를 뽐낸다.

Austrian Gramo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USTRIAN GRAMOPHONE

AG0012

바흐 & 바흐: 알토 플루트를 위한 작품

라자 나이파르(알토 플루트)

알토 플루트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들려주는 따뜻한 감성

알토 플루트는 현대의 앙상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악기지만, 독주악기로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음반은 J. S. 바흐의 〈파르티타 A단조〉와 C. P. E. 바흐의 〈소나타 A단조〉 등 무반주 플루트 작품을 수록하여 알토 플루트의 매력적인 음색을 들려준다. 이뿐 아니라 바흐의 바이올린과 첼로 작품을 편곡하여 새로운 묘미를 선사한다. 라자 나이파르는 테헤란 출신으로 위트레흐트와 빈에서 플루트와 작곡을 공부했으며, 모차르테움 인스부르크와 티롤 주립음악원, 빈 프라이너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음악을 쓰기도 했다.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J.S. Bach-Stiftung
St.Gallen

B668

바흐: 칸타타 26집(BWV.25 & 94 & 162)

게를린데 젤만 & 노리아 리알 & 요아네 룬(소프라노), 마고트 오이징거(알토), 다니엘 요한슨 & 죄렌 리히터 & 찰스 다니엘스(테너), 도미닉 뵈르너 & 스페판 맥클로드 & 페터 하베이(베이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재단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재단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세상의 무상에서 천국의 영원으로 나아가는 시선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 재단의 '칸타타 26집'. '내 육신에 온건함은 하나도 없고(BWV. 25)', '이 세상이 제게 무슨 소용인가요(BWV. 94)', '아! 이제 저는 봅니다(BWV. 162)'가 수록되어 있다.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느끼는 한 가지,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세상만사, 자연의 이치(하늘의 법칙)만이 무심히 반복될 뿐 그 안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것 아닐까. 세 작품은 세상의 무상에서 천국의 영원으로 나가가는 시선과 바람을 담고 있다. 시선의 끝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 부활절에도 어울릴 만한 작품들이다. 소박하지만 '수난곡'의 한 대목 못지않은 강렬한 반향. 루돌프 루츠와 장크트갈렌 J.S. 바흐 재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저력이 느껴지는 음반이다.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47

모차르트: 레퀴엠/ 하스: 일곱 개의 소리 공간

제니아 퀴마이어(소프라노), 사라 코놀리(알토), 토피 레흐티푸(테너), 알타스테어 마일스(베이스),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이보 볼튼(지휘)

새로운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모차르트의 〈레퀴엠〉의 또 다른 완성본

역사적인 거장의 미완성 작품은 후배 작곡가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그 중 하나로, 그의 제자인 쥐스마이어 완성본 이후 오늘날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음악가들이 스케치를 토대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하스도 미완성 부분을 토대로 〈일곱 개의 소리 공간〉이라는 자신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본래 별도의 작품이지만 이 음반에서는 모차르트가 완성한 부분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200여년 떨어진 음악이 만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두 세계를 오가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냈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80181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첨단 기술로 복원된
푸르트벵글러의 보석들
22 SACD Hybird + 푸르트벵글러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DVD [한글자막]

The Radio Recordings 1939-1945
New digital transfers & remastering [22 SACD - 180p book]

*** 세계 최초 음원 공개 –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제 1 모음곡 발췌 /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제 2 악장**
*** 독일 제국 방송국의 오리지널 테이프 음원을 현재 최고의 샘플링 기술로 재탄생**
(24 bit) / 96 KHz, 전시중 연주된 곡들을 베를린 필이 직접 선정하여 최고 음질 수준으로 복원, 최상의 조건으로 세트 구성.
*** 22 SACD Hybird + 푸르트벵글러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DVD (한글자막 포함)**
*** DVD는 초도한정으로 드립니다.**
*** 182 페이지의 방대한 북릿: 진귀한 사진자료들과 마스터경로 등 소귀한 자료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주자 목록]

푸르트벵글러(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발터 기제킹 · 에드윈 피셔 · 콘래드 한센(피아노),
티보르 데 마휼라 · 피에르 푸르니에(첼로), 게오르그 쿨렌캄프(바이올린)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첨단 기술로 복원된 푸르트벵글러의 보석들
1922년 베를린 필 취임 이후, 2차 세계대전기(1939~45)의 21개의 공연현장을 리마스터링한 22장 CD와 해설지(183쪽)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박스물이다. 이 녹음본은 훗날 독일 패전 후 소련군이 약탈하여 모스크바방송국에 보관되었고, 멜로디야나 우라니아 레이블을 통해 가끔 세상의 빛을 보았다. 그러다가 자료들이 1991년 독일로 송환되어 첨단기술로 복원되었다. 당시 프로그램북, 연습과 연주 광경, 녹음 관련 중요문서 등 인터넷으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자료와 해설이 수록되었다. 4CD의 베토벤 '합창'(1942)은 바이로이트 축제 실황(1952) 녹음과 함께 손꼽히는 최고의 녹음이다. 이외 베토벤 교향곡 4 · 5 · 6 · 7번을 통해 베토벤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으며, 슈트라우스 · 슈만 · 브루크너 · 브람스 등도 함께 한다. 푸르트벵글러의 음반이면서도 20세기를 풍미한 기제킹 · 마휼라 · 쿨렌캄프 · 푸르니에 등 신의 경지에 다다른 협연을 만날 수 있는 음반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보조자료]

– 한스 폰 뷜로에 이어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던 아르투르 니키슈가 사망하던 1922년, 빌헬름 푸르트벵글러(1886~1954)가 30대의 나이로 제3대 상임지휘자에 취임해 화제가 되었다. 푸르트벵글러는 니키슈의 레퍼토리를 전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스트라빈스키 · 라벨 · 쇤베르크 · 버르토크 · 힌데미트 등의 동시대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보수적인 음악계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인플레이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베를린 필하모닉은 기존의 자주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베를린시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 대가로 일정 횟수의 음악회를 의무 개최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나치 정권 치하에선 국립 관현악단이 되어 움직이며, 나치의 다양한 행사와 위문 공연을 선보였다. 푸르트벵글러는 1934년 힌데미트에 대한 나치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는 글을 신문에 게재하고 상임지휘자 직책을 사임했으나, 이듬해 복귀해 전쟁 말기까지 사실상의 상임지휘자 직책을 계속 수행했다.

–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달았던 전쟁 중에도 그의 연주는 방송용으로 녹음되었다. 특히, 당시 독일은 마그네틱 녹음 테크놀로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던 때였다. 그런데 전쟁 말기인 1945년 1월에 푸르트벵글러가 스위스로 망명했고, 독일 패전 후 베를린을 미국 · 영국 · 프랑스와 분할 통치한 소련군이 이 녹음자료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갔다.

– 흔히 마니아들 사이에서 '전시 녹음'이라고 불리는 이 음원들은 푸르트벵글러 다수의 명연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것들은 귀한 전리품으로 처리되어 소련 모스크바방송국에 보관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 소련 국영의 멜로디야 레이블에서 LP화되어 그 진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중 1944년 12월 19~20일 실황의 베토벤 교향곡 3번은 미국의 해적음반사 우라니아 레이블에서 출시되기도 했는데, 특유의 공격적이고 광포한 음향에 마니아들이 열광하기도 했다.

– 그간 멜로디야와 우라니아를 통해 만나온 푸르트벵글러의 '전시 녹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2장의 CD로 구성된 이 세트물은 1939년부터 1945년의 음원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개의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안내한다. 녹음의 일부가 1991년 독일로 송환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신중히 복원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샘플링하여, 24비트 해상도로 리마스터링 하였다.

– 부클릿은 총 183쪽. 각 공연마다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었다. 당시 프로그램북, 구 필하모니홀, 연습과 연주 광경, 중요문서, 레코딩을 위한 메모, 테이프를 담고 있는 종이 케이스와 문서 번호, 신문과 잡지 등의 사진자료도 만날 수 있다. 이 박스물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는 접근조차 힘든 귀한 자료와 해설들이다(*해설은 영문과 독문으로 구성).

– 1939~45년의 녹음은 푸르트벵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운드를 구사할 때이며, 베를린 필과의 호흡도 절정에 달해 있을 적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영감과 표현력은 물론, 전쟁의 상흔이 있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언제 어디서 공습이 시작될지 모르는 전장의 긴장감과 실존적 경험도 느껴지는 귀한 역사적 자료이다. 특히 4CD에 수록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바이로이트 축제 실황(1952) 녹음과 함께 손꼽히는 최고의 녹음으로, 공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1942년 베를린에서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은 역사적, 감동적 연주를 선사한다. 이 공연의 프로그램북의 해설지의 사진을 통해 접할 수 있다.

– 헨델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슈만 · 브루크너 · 슈베르트 · 모차르트 · 시벨리우스 · 브람스 등의 대표적인 협주곡과 교향곡이 담겨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베토벤 교향곡 4번(11CD), 5번(12CD), 6번(20CD), 7번(3CD), 9번(4CD)을 통해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이 박스물의 또 다른 매력이다.

– 22CD에는 당시 녹음을 주도했던 사운드 엔지니어 프리드리히 슈나프의 인터뷰가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고, 인터뷰 내용(영 · 독어)은 부클릿에 담겨 있다.

[음반별 수록리스트]

[CD 1] Concert No. 1
Wilhelm Furtwängler: Symphonic Concerto *Piano: Edwin Fischer CD 1 (track 1-3)

[CD 2] Concert No. 2
George Frideric Handel: Concerto grosso, op. 6 No. 5 CD 2 (track 1 – 5)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CD 2 (track 6- 9)

Concert No. 3
Richard Strauss: Verführung · Waldseligkeit Liebeshymnus · Winterliebe CD 2 (track 10-13)
Don Juan CD 2 (track 14) *Tenor: Peter Anders

[CD 3] Concert No. 4
Richard Wagner: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Prelude CD 3 (track 1)

Concert No. 5
Robert Schumann: Piano Concerto *Piano: Walter Gieseking CD 3 (track 2-4)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7 CD 3 (track 5-8)

[CD 4] Concert No. 6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9
*Tilla Briem, Elisabeth Höngen, Peter Anders, Rudolf Watzke, Bruno Kittelscher Chor CD 4 (track 1-4)

[CD 5] Concert No. 7
Christoph Willibald Gluck Alceste – Overture CD 5 (track 1)
Robert Schumann: Cello Concerto *Cello: Tibor de Machula CD 5 (track 2–4)

[CD 6] Anton Bruckner: Symphony No. 5 CD 6 (track 1-4)

[CD 7] Concert No. 8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2 *Piano: Edwin Fischer CD 7 (track 1-4)
Richard Wagner: Tristan und Isolde: Vorspiel & Liebestod CD7 (track 5)

[CD 8] Concert No. 9
Heinz Schubert: Hymnic Concerto *Erna Berger, Walther Ludwig, Fritz Heitmann CD 8 (track 1-4)

[CD 9] Franz Schubert: Symphony No. 8 "Die Große" CD 9 (track 1-4)

Concert No. 10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No. 39 CD 9 (track 5-8)

[CD 10] Concert No. 11
Jean Sibelius: En saga CD 10 (track 1)
Violin Concerto *Georg Kulenkampff CD 10 (track 2-4)

[CD11] Concert No. 12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4 (without audience) CD 11 (track 1-4)
Symphony No. 4 (with audience) CD 11 (track 5-8)

[CD12] Ludwigh van Beethoven: Coriolan, Overture CD 12 (track 1)
Symphony No. 5 CD 12 (track 2-5)

[CD13] Concert No. 13
Ernst Pepping: Symphony No. 2 CD 13 (track 1-4)
Ludwig van Beethoven: Piano Concerto No. 4 *Piano: Conrad Hansen CD 13 (track 5-7)

[CD14] Concert No. 14
Anton Bruckner: Symphony No. 6 (incomplete) CD 14 (track 1-3)
Robert Schumann: Cello Concerto (incomplete) *Cello: Pierre Fournier CD 14(Track 4-5)
Richard Strauss: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CD 14 (track 6)

[CD15] Concert No. 15
Johannes Brahms: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CD15 (track 1-10)
Piano Concerto No. 2 *Piano: Adrian Aeschbacher CD15 (track 11-14)

[CD16] Beethoven: Symphony No. 4 CD 16 (track 1-4)

[CD17] Concert No. 16
Ludwig van Beethoven: Violin Concerto *Vilon: Erich Röhn CD17 (Track 1-3)

[CD18] Richard Strauss: Symphonia domestica CD 18 (Track 1-4)

[CD19] Concert No. 17
George Frideric Handel: Concerto grosso, op. 6 no. 10 CD 19 (track 1-5)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No. 39 CD 19 (track 6-9)

[CD20] Concert No. 18
Carl Maria von Weber: Der Freischütz - Overture CD 20 (Track 1)
Maurice Ravel: Daphnis et Chloé, Suite No. 1 (incomplete) CD 20 (track 2-3)
Daphnis et Chloé, Suite No. 2 CD 20 (track 4-6)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6 "Pastorale" CD 20 (track 7-11)

[CD21] Concert No. 19
Anton Bruckner: Symphony No. 9 CD 21 (Track 1-3)

[CD22] Concert No. 20
Franz Schubert: Symphony No. 7 "Unvollendete" CD 22 (track 1-2)

Concert No. 21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4. Adagio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CD 22 (Track 3)

[BONUS CD]
Bonus Interview with Friedrich Schnapp CD 22 (track 4)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73 **[추천음반]**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에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낸 명연
마리스 얀손스는 리듬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음색을 선명하고 밝게 만든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젊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극히 무게감 있고 상당한 두께의 화음을 가진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에서도 이러한 그의 특징이 여전할까? 그 대답은 'Yes'이다.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의 각 음색들이 살아있으며, 명료한 리듬으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브루크너답게 템포를 충분히 느리게 잡고서도 이러한 특징을 성취했다는 것은 놀랍다.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낸 명연이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305 **[2CDs]**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만치니(마리아), 보닐라-토레스, 메르테스,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슈프렝어(지휘)
피아졸라가 남긴 최대 규모의 걸작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 전곡을 드디어 만나다!
피아졸라의 오페레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마리아〉는 탱고 음악으로 구성되어 '탱고 오페라'라고도 불리며, 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오페라-발레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매춘부인 마리아의 비극적인 삶과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지는 일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마리아의 환영과 악령이 등장하고 심리적인 세계를 다루는 등, 내용은 다소 초현실적이다. 마리아 역의 루치아나 만치니의 관능적인 음성과 반도네온의 종주국인 독일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로타르 헨젤의 연주는 마음 깊숙이 전달된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8226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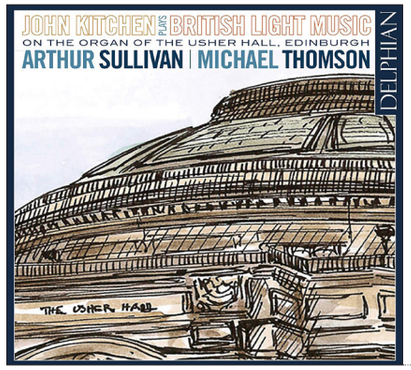
가데: 마왕의 딸, 다섯 개의 노래

조피 융커(소프라노), 이보네 푹스(알토), 요하네스 바이서(바리톤), 덴마크 국립 보컬앙상블, 콘체르토 코펜하겐, 라르스 울리케 모르텐센(지휘)

멘델스존과 브람스에 견줄 덴마크의 보석, 가데의 극적인 칸타타

닐스 가데는 덴마크가 자랑하는 낭만주의 작곡가로, 풍부한 감수성과 충실한 음악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가데의 대표적인 칸타타인 〈마왕의 딸〉은 덴마크의 전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멘델스존과 슈만, 브람스 등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화음, 극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수준 높은 예술성을 들려주고 있다. 가데는 이 곡이 독일어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이 음반에서 독일어 버전을 시대악기 연주하여 당시를 재현했다. 〈다섯 개의 노래〉는 멘델스존과 브람스와 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ELPHIAN

DCD34212

설리번과 톰슨의 가벼운 영국음악

존 키첸(오르간)

19세기와 20세기 영국의 대중들이 환호했던 경쾌한 음악

19세기 영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오페라타의 중심에는 아서 설리반이 있었다. 그는 극작가인 W.S. 길버트와 함께 수많은 오페레타를 만들었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들은 가볍고 즐거운 오락물로서, 근대 뮤지컬의 태동에 기여했다.
마이클 톰슨은 20세기 후반에 활동하면서도 진지한 현대음악보다는 영화와 연극 음악에 몰두했으며, 극장의 오르가니스트로서 활동했다.
약 100년의 차이가 있는 이 두 작곡가는 영국의 대중음악의 한 면을 이끈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두 작곡가의 음악을 들으면 관중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하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CDS7824

타르티니: 바이올린 소나타 3집

치르토미르 쉬슈코비치(바이올린), 루카 페리니(하프시코드)

타르티니가 봉직했던 성당에서 발견된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주세페 타르티니는 18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만큼, 그의 작품들은 세계 도처에 전해져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쉬슈코비치와 페리니는 그 중에서도 타르티니가 봉직했던 파두아의 성 안토니 성당 아카이브에서 '문서번호 1905'로 발견된 61개의 소나타를 기준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여섯 개의 소나타들은 모두 세 악장의 실내소타나 양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폭넓은 도약과 꾸밈음 등 기교를 요구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에 서정적인 풍미도 한껏 담아내고 있다.

CDS7839

바흐: 여섯 개의 트리오 소나타, BWV 525~530

엑스트라바간티아 두오

기타와 하프시코드의 이색적이면서도 절묘한 조화가 풀이하는 색다른 바흐

바흐의 오르간 작품인 '여섯 개의 트리오 소나타'를 기타와 하프시코드를 위해 편곡했다. 바흐의 음악을 기타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보아왔지만, 하프시코드와 함께 연주하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다. 그 결과 뜻밖에 훌륭한 조화를 얻어냈다. 두 악기는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고 음량이 크지 않다는 공통점으로 매우 균형 잡힌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몰멘티의 기타는 따뜻한 음색을 지녔으며 모범적인 표현으로 음악을 리드하고, 아카르도의 하프시코드는 감각적인 표현으로 음악을 풍부하게 만든다.

CDS7829

젠틸레스키와 동시대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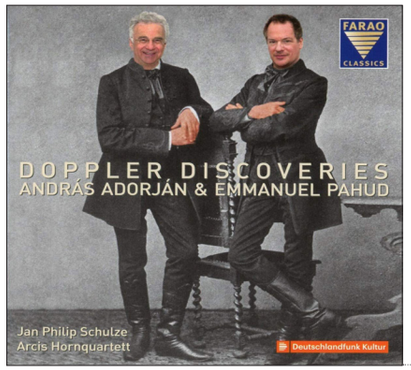
실비아 프라기토(소프라노), 아카데미아 다르카디아, 알레산드라 로시 뤼릭(지휘)

17세기 전반기 이탈리아를 풍미한 소박하면서도 애달픈 노래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17세기 초의 화가로서, 당시에는 매우 드문 여성 예술가였다. 천재 화가로 평가 받아 여성 최초로 피렌체 아카데미아 회원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유디트 그림이 특히 유명하다. 이뿐 아니라 류트를 연주하는 자화상 등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여러 작품을 남겼다. 이 음반은 그녀가 직접 들었을 바로크 초기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바로크의 문을 연 몬테베르디를 비롯하여, 알레그리, 메룰라, 로시, 스트로치, 폰타나, 카스텔로 등 17세기 전반기의 이탈리아를 풍미했던 거장들의 소박하면서도 애달픈 노래들로 가득한다.

Farao

www.farao-classics.de



B108104

도플러 형제: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전원 환상곡, 대 환상곡, 숲속의 새들 등

언드라시 어도란(플루트), 에마뉘엘 파위(플루트), 얀 슐체(피아노), 아르치스 혼 사중주단

19세기 플루트 음악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도플러 형제의 걸작들

플루트의 혁신이 있었던 19세기, 특히 연주 기술의 발전에는 도플러 형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도플러 형제는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여 플루트의 다양한 연주법을 보급했는데, 작품들 또한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오늘날에도 플루트 레퍼토리로서 연주되고 있다. 이 음반은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로,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하여 〈전원 환상곡〉, 〈헝가리 변주곡〉, 〈대 환상곡〉, 〈고향에서〉 등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았던 명작들을 수록했다. 또한 플루트와 네 대의 혼을 위한 〈숲속의 새들〉은 환상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걸작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ramola

www.gramola.at

99188

모차르트: 레퀴엠 (현악사중주 편곡)

판돌피스 콘소트

19세기 초 모차르트 열혈 팬이 만든 〈레퀴엠〉의 사중주 편곡

녹음과 음반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대규모의 작품들은 실내악으로 편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작곡가 페터 리히텐탈에 의해 현악사중주로 편곡되었다. 모차르트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1810년에 밀라노에 이주했는데, 이탈리아에는 모차르트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곡을 현악사중주로 편곡했다. 그의 편곡은 본래 현악사중주 작품인 듯 정교하고 가벼우며, 어렴풋이 가사가 들리는 듯하다. 시대악기단체인 판돌피스 콘소트의 연주는 더 이상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이 잡혀 있고 아름답다.

99141 [SACD]

엘가: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소나타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하엘 코어슈티크(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임스 저드(지휘)

〈사랑의 인사〉의 작곡가 엘가가 남긴 초대형 스케일의 걸작들

19세기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협주곡이 교향곡 수준으로 거대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심포닉 콘체르토'라고 하는데, 피아노로 시작되어 바이올린으로 옮겨갔다. 영국 낭만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드워드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러한 유형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로, 약 50분에 달하는 상당한 길이에 바이올린의 다양한 악상과 관현악의 화려한 색채가 더해져 매우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엘가 말년의 작품 중 하나인 〈바이올린 소나타〉는 고전주의적인 작품으로, 거장다운 스케일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99182

하이든: 현악사중주, Op. 54-2/
브람스: 현악사중주 2번/
버르토크: 현악사중주 2번

퍼시픽 현악사중주단

18~20세기의 현악사중주 역사를 꿰뚫는 새로운 실내악 강자의 명연

퍼시픽 현악사중주단은 2015년에 하이든 실내악 콩쿠르에서 1등상과 함께 관객상, 하이든 최고 해석상을 휩쓸었으며, 2016년에 바젤에서 아우구스트 피카르트 상을, 2018/19년에는 '뉴 오스트리안 사운드 오브 뮤직' 상을 받으면서 유럽 정상급 앙상블로 인정받았다. 이 음반은 그들에게 영예를 안겨준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Op. 54-2〉와 브람스의 중요한 실내악곡인 〈사중주 2번〉,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중주곡으로 꼽히는 버르토크의 세트 중 하나인 〈사중주 2번〉을 수록하며,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현악사중주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

99189 [SAC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성 플로리안 알토몬테 오케스트라, 레미 발로(지휘)

입체적인 음향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진정한 부르크너 사운드

브루크너는 〈교향곡 7번〉의 독일 연주가 크게 성공하여, 이후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교향곡 작곡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렸다. 오늘날에도 거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음향, 명확하고 아름다운 선율, 명상적이면서도 중후한 안정감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브루크너가 오르가니스트로 일했던 성 플로리안 성당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브루크너 음악제에서는 레미 발로가 지휘하는 알토몬테 오케스트라가 부르크너의 교향곡을 한 곡씩 연주하고 음반으로 발매하고 있다. 입체적인 음향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진정한 부르크너 사운드의 표본이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94

이바르를 위한 탱고

'탱고'라는 하나의 주제로 작곡된 가지각색 스타일의 피아노 소품

20세기 후반에 아르메니아를 대표했던 피아니스트인 이바르 미하쇼프는 1983~91년 사이에 127명의 작곡가들에게 탱고 작품을 위촉했다. 그 결과물은 현대적인 음악부터 테크노 스타일까지, 명상적인 분위기부터 시끌벅적한 분위기까지 작곡가의 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이 음반에는 그 중에서 열여덟 곡을 선정하여 수록되었다. 탱고의 거장인 피아솔라를 비롯하여 뉴욕의 현대음악을 이끌었던 볼페, 12음기법이 돋보이는 바비트,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나이먼과 존슨, 격렬한 댄스를 연상시키는 펜더 등 모두 매력과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98
티그라니안: 아르메니아 민속 무곡, 무감 편곡집
미하엘 아이라페티안(피아노)

인류의 유구한 역사와 인간의 애수가 담긴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의 민속음악
니코가요스 티그라니안은 1856년생으로, 19~20세기에 걸쳐 민속음악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곡한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작곡가 1세대에 속한다. 그런 만큼 민속음악을 정리하여 편곡한 작품들이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하고 성격이 분명하면서도 다양한 감성을 품고 있으며, 강한 타건과 독특한 색채감을 띠는 화음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아르메니아 민속무곡〉은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페르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속음악으로 만든 '무감 편곡집'은 유구한 역사를 구슬피 읊는 듯하다. **[세계 최초 녹음]**

GP809
A WHOLE IN 12: 피아노 소품집
미하엘 아이라페티안(피아노)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한 편의 로맨탁한 음악영화가 펼쳐지는 당신을 위한 선물
미하엘 아이라페티안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아르메니아의 비밀'이라는 프로젝트로서 작곡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현대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우 서정적이고 로맨틱한 감성으로 가득하다. 고독과 슬픔을 머금은 〈가을〉, 강렬한 타건으로 호소하는 듯한 〈열망〉,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말하는 듯한 〈딜레마〉, 애틋한 독백과 같은 〈기도〉, 명상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구름〉,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첫 눈〉, 앞으로의 기대를 품은 〈크리스마스 이브〉 등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한 편의 음악영화와 같은 앨범이다. **[세계 최초 녹음]**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IBS242018
스카를라티: 14개의 피아노 소나타
알베르토 우로스(피아노)

우리 시대에 살아 숨 쉬는 소리로 들려주는 우로스의 마법과 같은 연주
알베르토 우로스는 멘디고리아 국제 음악제의 음악감독이며, 알폰소 10세 대학교와 아르투로 소리아 대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이 음반을 내놓았다. 그의 스카를라티는 작품이 전달하는 고유의 감성과 오늘날의 피아니즘이 결합되어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의 음악이 아닌,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 숨 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즉, 우로스는 18세기 음악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으로부터 받게 되는 감성을 복원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CA Classics *www.icaclassics.com*

ICAC5156
왁스만: 카르멘 환상곡/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하토리 모네(바이올린),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란 부리바예프(지휘)

"광채가 빛나는 열정과 완벽한 테크닉" (베를리너 차이퉁)
음악을 위해 태어난 1999년생 하토리 모네는 10세 때에 리핀스키/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 이후 다섯 개의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비범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녀는 이미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진 신동 출신이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반은 하토리의 데뷔 앨범으로, 17세 때인 2016년에 녹음되었다.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에서는 완벽한 기교로 그 어떤 패시지에서도 밀도 있고 정확한 소리를 들려준다. 쇼스타코비치의 〈협주곡 1번〉에서는 대조적으로 극도의 진지함으로 비극적 서정을 선명하게 전달한다.

LCS HIRES *www.willowhaynerecords.com*

LCSCD0006
아모르바흐에서의 바흐
니콜라스 키나스턴(오르간)

1782년에 완성된 유서 깊은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다면체적인 바흐의 모습들
프랑크푸르트에서 동남쪽 약 50km 부근에 '아모르바흐'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1961년부터 약 10년간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니콜라스 키나스턴은 '바흐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을에서 1782년에 완성된 유서 깊은 악기로 바흐의 작품들을 연주했다. 이 음반에는 〈협주곡 D단조〉, 〈파사칼리아와 푸가 C단조〉, 〈전주곡과 푸가 E♭장조〉, 〈환상곡과 푸가 C단조〉,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D단조〉 등 대규모의 작품과 소박한 코랄 전주곡을 번갈아 넣어, 바흐를 다각도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MD&G www.mdg.de

903 2095-6 [SACD]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K489b 중 1, 2, 5번, '티토의 자비' 모음곡
트리오 로소

다양한 음색으로 더욱 투명하게 즐기는 세 개의 목관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고전 시대에 많이 작곡된 '디베르티멘토'는 여흥을 즐기거나 행사에서 연주되는 음악이었기에 귀족 중심 사회였던 당시에는 이 곡의 수요가 많았다. 모차르트 역시 많은 디베르티멘토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K439b로 묶여진 다섯 개의 작품은 세 개의 바셋혼을 위해 작곡되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바셋혼이란 클라리넷과 유사한 악기로, 길이가 약간 길어 보다 낮은 소리를 내고, 목이 약간 꺾여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음반은 이 곡을 오보에와 클라리넷, 바순을 위해 편곡하여 더욱 다양한 음색으로 이 곡을 신선하고 투명하게 즐길 수 있다.

Naxos www.naxos.com

8506033 [6 for 4]
존 필드: 피아노 협주곡, 녹턴, 소나타 전집
노던 신포니아(연주) 데이비드 하슬람(지휘)

19년 동안의 오롯한 조탁, 존 필드 작품의 정수
50여 장에 이르는 벤자민 프리스의 녹음 중 일생의 역작이라 할 만한 시리즈, 존 필드의 피아노 작품집이 하나의 세트로 갈무리 되었다. 존 필드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녹턴'과 스승인 클레멘티에게 헌정된 '피아노 소나타 4번', 초연 당시 쇼팽과 리스트가 자리를 함께했던 피아노 협주곡 7번등이 포함된 존 필드 작품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작곡가 특유의 투명한 뉘앙스가 살아있는 벤자민 프리스의 피아노와 데이비드 하슬람이 지휘하는 노던 신포니아의 포근하면서도 너른 스케일, 둘의 환상적인 조화는 이미 호평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19년 동안의 오롯한 조탁으로 드러나는 존 필드 작품의 진정한 매력, 강력 추천한다.

8506035 [6 for 4]
베스트 오브 이딜 비레
이딜 비레(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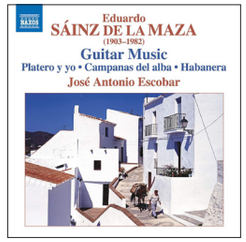
전설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라!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레는 전설로 통한다. 터키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7세의 비레가 파리 음악원에서 불랑제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후에 전설적인 거장인 알프레드 코르토와 빌헬름 켐프의 지도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16세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7세에 자국의 현대작곡가인 사이군의 협주곡을 녹음했을 정도로, 그녀의 실력은 10대에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었다. 이 앨범은 130장에 이르는 그녀의 스튜디오 녹음 중에서 독주, 실내악, 협주곡 등 특별히 프로그래밍한 것으로, 그녀의 위대한 여정을 담았다.

8573275
고틀리브 무파트: 하프시코드 모음곡 2집
아쿠타가와 나오코(하프시코드)

변화무쌍한 흐름과 우아한 스타일, 고틀리브 무파트의 건반 모음곡의 재발견
게오르그 무파트의 진정한 후계자, 고틀리브 무파트는 헨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스타일을 융합해 자신 만의 색채를 탄생시킨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담고 있는 본 음반은 2차 세계 대전 중 폴란드의 로스토츠니크를 거쳐 러시아로 반입되었다가 2001년 베를린으로 반환된 사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세계 최초 녹음) 고틀리브 무파트의 건반 음악 작품들을 녹음하고 있는 아쿠타가와 나오코는 변화무쌍한 흐름과 우아한 스타일을 살린 정교한 연주로 작곡가의 진면모를 드러낸다. 해설지에는 아일랜드 출신의 고틀리브 무파트 연구자 앨리슨 던롭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55
브람스: 현악오중주 1 & 2번
마리아 램부로스(비올라),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연주)

봄을 그리는 겨울 해바라기의 인상
브람스의 현악사중주와 클라리넷 오중주, '자유와 고독'이 빚는 우수를 담담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한 전작(8.573433 & 8.573454)에 이어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은 브람스 만년의 걸작 현악 오중주 1번과 2번을 선보인다. 바트 이슐의 햇빛과 아련한 향수 그리고 멜랑콜리를 대하는 뉴질랜드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는 봄 마중을 앞둔 겨울 해바라기 마냥 온기와 오롯한 열정을 머금고 있다. 따뜻한 질감과 음향, 다름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며 내뿜는 극적인 에너지가 강한 여운을 선사한다. 강력 추천한다.



8573456
에두아르도 사인즈 마사: 기타 음악 작품집
호세 안토니오 에스코바(기타)

아기자기한 색감, 아련한 인상
'아랑훼즈 협주곡'을 헌정 받은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레히노 사인즈 마자의 동생 에두아르도 사인즈 마사는 형 못지않은 활동으로 스페인 기타 음악에 공헌했다. 레히노의 기타 음악 작품집(8.572977)과 더불어 본 음반은 20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찬란한 순간을 수놓은 형제의 활약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트레몰로('새벽종')을 시작으로 지난날 예술에 대한 경의('하이든 찬가', '로트렉 찬가')을 거쳐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작품을 테마로 작곡한 '플라테로(당나귀)와 나'에 이르는 여정. 아기자기한 색감이 자아내는 아련한 인상은 고아한 멋으로 가득하다.

8573654
알렉산더 모이제스: 교향곡 9 & 10번
슬로바크(지휘자), 슬로바키아 방송 교향악단

어두움과 빛의 극적인 대비
당대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알렉산더 모이제스는 모두 12곡의 교향곡을 남겼다. 지금은 잊힌 작곡가의 뛰어난 유산을 조명하는 시리즈 다섯 번째 음반에는 교향곡 9번과 10번이 수록되었다. 소련 침공의 비극과 절망이 담겨 있는 '교향곡 9번'의 어두운 색채는 2차 세계 대전의 상흔과 일생의 슬픔(교향곡 4번과 7번), 소련 침공의 충격(교향곡 8번)이 담긴 전작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대망의 '교향곡 10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실의 도피처를 연상시키는 듯한 목가적인 색채(슬로바키아의 풍광)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어두움과 빛의 극적인 대비, 시대를 살아간 예술가의 고뇌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8573832
마르크스: 옛 빈의 세레나데, 고풍스러운 파르티타, 고전풍의 교향곡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티븐 슬로운(지휘)

고전음악의 기쁨을 오롯이 담고 있는 마르크스의 관현악 작품 2집
20세기 초 조성 체계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전통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작곡가들도 나타났다. 요제프 마르크스는 그 대표적인 작곡가로, 푸르트뱅글러는 마르크스를 오스트리아 최고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추켜세웠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완전히 잊히고 말았지만, 그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고풍스러운 〈옛 빈의 세레나데〉와 전설을 간직한 듯한 〈고풍스러운 파르티타〉, 생동감 넘치는 〈고전풍의 교향곡〉 등은 고전음악의 기쁨을 오롯이 담고 있다.

8573906
보인 코치치: 기타 리사이틀
보인 코치치(기타)

하인스베르크 국제 기타 공쿠르 우승 기념 음반
세르비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보인 코치치는 수많은 국제 콩쿠르(50여 곳)를 거치며 연주 경력을 쌓아왔다. 2017년 하인스베르크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탄생한 본 음반에서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 경력을 기반으로 바로크에서부터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시간과 클래식 기타의 기교와 표현력을 극대화 시킨 스타일을 아우르고 있다. 2개의 대곡, 자신이 편곡한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2번'(BWV.1004)과 마누엘 퐁세의 대작 '라 폴리아에 의한 주제, 변주와 푸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한 레곤디와 파지에츠니의 작품은 다른 기타 음반과는 구별되는 강렬하면서도 정교한 인상을 선사한다. 연주자의 통찰력이 느껴지는 음반이다.

8579049
바흐: 마니피카트(BWV. 243), 로베르트 헬름슈로트: 루멘(빛)
시릴 카롤린 손힐 · 미라 그라치크 · 소피아 쾨르버 · 안나 카르마진(소프라노), 테레사 홀츠하우저 · 플로렌스 루세우(알토), 마르쿠스 쉐퍼 · 로베르트 셀리에(테너), 니클라스 말만 · 안드레아스 마터스베르거(베이스), 지몬 마이어 합창단(합창), 프란츠 호우크(지휘)

예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다름을 넘어서기 위한 음악적 제안
지몬 마이어 작품 시리즈로 잊힌 작곡가의 면모를 새롭게 복원하고 있는 프란츠 호우크와 지몬 마이어 합창단은 예수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다름'을 넘어 평화(화합)에 이르기 위한 음악적 제안을 선보인다. '수태고지'를 주제로 한 바흐의 '마니피카트'에서는 빛과 생명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로베르트 헬름슈포트의 '루멘(빛)'에서는 아브라함을 주제로 예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묵직하면서도 결삭은 반향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메시지와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8573944
슈만: 두 개의 스페인 노래극, 미네슈필(발췌)
안나 팔리미나(소프라노), 마리온 에크슈타인(알토), 시몬 보데(테너), 마티아스 호프만(베이스바리톤), 울리히 아이젠로어, 슈테판 이르머(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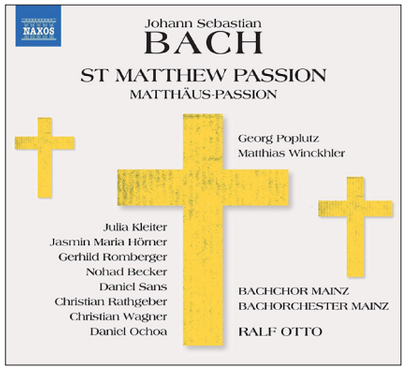
폭넓은 감정을 가진 여러 표정의 선율이 가득한 슈만의 경쾌한 노래극
슈만은 1840년에 이어 1849~51년 사이에도 집중적으로 가곡을 작곡했다. 이 시기는 다양한 감성과 더욱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며, 극적인 표현력도 크게 발전했다. 1849년 작품인 두 개의 '스페인 노래극'은 '노래극'이라는 독특한 이름에서 보듯이, 한 소녀와 소년에 대한 에마누엘 가이벨의 이야기를 무지컬처럼 만든 것이다. 그래서 폭넓은 감정을 가진 여러 표정의 선율을 들을 수 있으며, 이중창부터 사중창까지 음악적 풍부함을 더했다. 슈만은 이 곡에 특별히 스페인 춤곡 리듬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8574045
와일드 댄스
두오 소니도스: 윌리엄 너스(바이올린), 애덤 레빈(기타)

로맨틱한 선율과 감각적인 리듬이 풀어내는 우리들의 감성
20세기 음악은 우리 시대의 춤이 반영되어 격렬한 리듬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특히 재즈와 블루스, 포크댄스 등의 미국의 춤과 남미의 열정적인 춤이 큰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뮤지컬이 일반화되면서 로맨틱한 선율 또한 우리시대의 대표음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음반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슈윈과 라벨, 마누엘 퐁스, 존 윌리엄스, 루카스 포스 등의 감각적인 음악들을 수록했다. 유럽의 로드리고와 콘골트 또한 대중의 감성을 지닌 새로운 시대의 선율로 화답한다. 그리고 바이올린의 아련한 음색과 기타의 애틋한 음향도 감성을 더욱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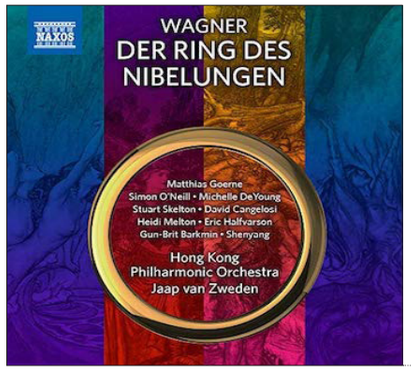
8574067
알베르토 네포무센코: 관현악 작품집
미나스 제라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파비오 메케티(지휘)

장쾌한 반향, 브라질 민족주의 음악의 전령 네포무센코의 관현악 작품
브라질 외무부에서 후원하는 '브라질의 음악(The Music of Brazil)' 시리즈 첫 번째 음반은 알베르토 네포무센코의 관현악 작품을 담고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휘하기도 했던 작곡가의 대표작 '오페라 〈선머슴〉 전주곡', 브라질 민속 리듬(특히, 열정적인 바투카다 댄스)의 향연이라 할 만한 '브라질 모음곡', 브람스의 영향이 돋보이는 '교향곡 g단조'는 민속 음악 요소를 작품에 도입한 최초의 작곡가 중 한 명이자 빌라-로부스의 초기작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출판하는 등 '브라질 민족주의 음악의 전령'으로 활약한 작곡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8574036–38 [3CDs]
J. S. 바흐: 마태 수난곡(BWV. 244)
게오르그 포플루츠(테너, 복음사가),
마티아스 빈클러(베이스, 예수),
율리아 클라이터 & 야스민 마리아 회르너(소프라노),
게르힐트 롬베르거 & 노하드 베커(알토), 다니엘 산즈 & 크리스티안 라트게버(테너),
크리스티안 바그너 & 다니엘 오초아(베이스), 마인츠 바흐 콰이어(합창),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연주), 랄프 오토(지휘)

종교음악의 최고봉, 오롯한 신앙과 극적인 구조의 조화
그리스도 수난의 내적 통찰을 담고 있는 '요한수난곡'(8.573817–18)의 진중한 탐구에 이어 랄프 오토가 이끄는 마인츠 바흐 오케스트라는 종교 음악의 최고봉 '마태수난곡'을 선보인다. 바흐가 남긴 5편의 수난곡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수난'의 '인간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작품의 면모, (내지에 적혀있듯) 두려움(phobos)과 긍휼(eleos)을 거쳐 정화(katharsis)에 이르는 드라마틱한 구조와 신학 담론에서 얻은 영감의 절묘한 조화는 전작과 같은 색채(단출하기에 더없이 오롯하고 숙연하게 다가오는 반향)속에서 짙은 호소력을 갖는다. 음반 마지막에는 '그렇다! 우리의 살과 피는 정녕(십자가에 달려야 하거늘)' & '오라, 달콤한 십자가여'가 베이스와 두 대의 플루트, 류트와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버전으로 수록되어 있다.



Naxos 8501403 [14CDs for 8CDs]

홍콩에 모인 바그너의 별들
2015–18 홍콩 문화센터 실황
–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실황(콘서트버전) 음반

얍 판 즈베덴(지휘),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티아스 괴르네(보탄), 시몬 오닐(지그프리 트), 헤이디 멜턴(지글린데/브륀힐데–지그프리트), 쿤–브릿 바크민(브륀힐데–신들의 황혼) 외

1) 전작 14장으로 구성 + USB 카드(대본/ 영+독, 공연실황사진 + 인터뷰)
2) 가격: (14CDs for 8CDs)
3) 2015–2018년사이 홍콩 필의 완주 총 20시간

홍콩에 모인 바그너의 별들
2015~18년에 홍콩 필하모닉과 상임지휘자 즈베덴이 1957년 창단 최초로 진행한 '니벨룽의 반지' 전작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각각 출시된 4부작의 CD들을 하나에 모았다. 1부 라인의 황금(2CD, 2015실황), 2부 발퀴레(4CD, 2016실황), 3부 지그프리트(4CD, 2017실황), 4부 신들의 황혼(4CD, 2018실황)으로 구성되어 총 14장. 해설지(영/독어)는 각 편에 해당되는 내용이 4개로 나뉘어 있다. 마티아스 괴르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날아온 바그너 가수들의 향연이며, 콘서트버전인만큼 음악적인 집중도가 높으며, 녹음도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또렷이 담고 있다. 박스물에 동봉된 UBS 카드에는 대본(영 · 독어)과 공연 실황 사진, 클라우스 헤이만(낙소스 회장)를 비롯하여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영어자막).

[보조자료]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는 총 4편으로 1부 라인의 황금, 2부 발퀴레, 3부 지그프리트, 4부 신들의 황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니벨룽의 반지'는 크게 보탄을 중심으로 하는 신들의 세계, 난쟁이 니벨룽족의 세계, 지크프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들의 세계가 몰락한 후 인간의 세계가 새로이 탄생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반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사랑, 배신, 복수 그리고 종말을 통한 권력의 허망함, 인생의 덧없음 등 인간의 삶에 있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주 받은 반지가 저주에서 풀려나기까지의 여정과 그 반지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푸치니를 비롯한 이후 작곡가 세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2015년부터 홍콩 필은 4편의 작품을 완주했고, 음반사 낙소스에서 모든 실황을 녹음해 음반으로 발매했다. 오페라 4부작의 총 공연 시간은 20시간. 홍콩필이 '니벨룽의 반지' 전막을 연주한 것은 1957년 창단 이후 처음이다.

홍콩과 바그너라는 조합의 성공 뒤에는 지휘자 얍 판 즈베덴이 있다. 네덜란드 태생으로 2012년 홍콩 필을 맡은 이래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다. 홍콩 필은 하이든 · 모차르트 같은 고전시대로 기본기를 쌓고 말러 등에서 사운드의 한계를 넓혔다. 해마다 150회 넘게 연주 일정을 잡고, 해외 투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4년에 걸친 '니벨룽의 반지' 전곡 연주 · 녹음은 그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홍콩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 성과를 인정받은 즈베덴은 뉴욕 필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낙점됐다.

본 음반은 낙소스가 그간 한 편씩 내놓음 음반을 한데 모은 것이다. 1부 라인의 황금(2CD, 2015 실황), 2부 발퀴레(4CD, 2016 실황), 3부 지그프리트(4CD, 2017 실황), 4부 신들의 황혼(4CD, 2018 실황)으로 구성되어 총 14장의 CD로 되어 있다. 해설지(영/독어)는 각 편에 해당되는 내용이 4개로 나눠져 있다. 결론적으로 홍콩 필의 첫 도전, 즈베덴의 바그너 역량을 만날 수 있는 종합세트물이다.

무엇보다 바그너의 완결은 성악진이 찍는 법. 마티아스 괴르네를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는 바그너 가수들이 아시아로 다 모인 셈이다. 홍콩문화센터 콘서트홀에 오른 콘서트버전 인만큼 음악적인 집중도가 높으며, 녹음도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또렷이 담고 있다. 발음과 소리의 색채가 분명하게 들리면서도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다.

박스물에는 UBS 카드도 들어 있다. 4편의 대본(영/독어), 4개 공연 실황 사진, 이 녹음 프로젝트를 기획한 낙소스의 클라우스 헤이만 회장 인터뷰(약 4분/영어 자막),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인 필 로울랜즈와 부엔지니어로 함께 한 제임스 클라크의 인터뷰(약 13분/영어자막)이 동봉되어 있다.

8559812
수자: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 18집
트리니티 라반 윈드 오케스트라(연주)

새롭게 드러나는 수자의 작품, 세련미와 유쾌함을 갖춘 관악합주의 멋
약 40여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수자의 '관악 밴드를 위한 작품' 18집에서는 '행진곡의 왕'이자 오페레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작곡가의 면모를 세계 최초로 녹음된 작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 구노의 '파우스트' 등 이미 잘 알려진 작품들을 관악 합주 버전으로 편곡해 작품의 멋을 살리는 작곡가의 재치는 새롭게 다가온다. 수자 특유의 세련된 편곡, 유쾌함을 갖춘 관악 합주의 멋스런 질주는 '판 아메리칸 행진곡(2부)'(1부는 8.559811)의 열정과 기백으로 끝을 맺는다. 트리니티 라반 윈드 오케스트라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가 인상적이다.
*** '총각 파티'(2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46–47 [2CDs]
이안 크루제: 아르메니아 레퀴엠
쇼시크 바르소미안(소프라노), 게리네 아바키안(메조 소프라노), 예기세 마누차리안(테너), 블라디미르 체노프(바리톤), 루벤 하루투미안(두둑), 크리스토프 불(오르간), 치아찬 어린이 합창단 & 락 마스터 싱어즈(합창), UCLA 필하모니아 & VEM 현악사중주단(연주), 닐 스털버그(지휘)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 추모 작품, 비극과의 화해 그리고 희망의 메세지
아르메니아 작곡가 이안 크루제는 기타 사중주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음반은 몇 년 전부터 합창음악에 매진하고 있는 작곡가의 새로운 결실을 담고 있다. 19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인 '아르메니아 레퀴엠'은 라틴어 전례 미사의 형식에 W. 오웬의 시를 결합한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을 모델로 작곡되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 비극과의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모색하는 작품의 주제, 모국의 참상을 재현하는 듯한 아르메니아 전통 악기 두둑(Duduk)의 슬픈 음색과 에릭 에센발즈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는 가슴 뭉클하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1380
그레이스 윌리엄스: 실내악 작품집
런던 챔버 앙상블(연주), 마들렌 미첼(바이올린 & 지휘)

웨일즈의 여성작곡가 그레이스 윌리엄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실내악 작품들
본 윌리엄스와 에곤 벨레츠를 사사했으며 벤자민 브리튼과 일생의 친구 관계를 맺기도했던 그레이스 윌리엄스. 웨일즈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임에도 그녀의 작품은 지나친 '자기 비평' 탓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본 음반은 그레이스 윌리엄스의 실내악 작품 약 40여년의 편린을 담고 있다. 그녀만의 색채, 영화 음악을 닮은 간결하고 생동감 넘치는 정경.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 트럼펫이 등장하는 '오보에, 트럼펫,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육중주'는 슈만의 필치로 그린 영국 전원의 풍경을 연상케 할 만큼 매력적이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667
볼프강 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2집
티안와 양(바이올린),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연주), 대럴 앙(지휘)

'나비효과'를 연상케하는 전개, 극한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
'인상을 타고 공간을 유영하는 빛의 아우라'를 선보였던 1집(8.573812)에 이어 티안와 양은 대럴 앙이 지휘하는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와 함께 볼프강 림의 또 다른 대표작들을 통해 작곡가의 매력을 조명한다. 두 명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안네 소피 무터와 카롤린 비트만)에게 헌정된 작품(각각 '시간 성가'와 '활로')과 '빛놀이'는 깃털처럼 가볍고 고요한 날갯짓이 불러오는 파국의 인상과 더불어 작곡가 특유의 간결미와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하는 극한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나비효과' 또는 물의 흐름('상선약수')을 연상케 하는 작품의 색채, 티안와 양의 예리하면서도 강렬한 보잉과 이에 유려함을 더하는 대럴 앙의 해석이 압권이다.

8555318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9권 & 음악의 유희
델리티에 무지카(연주), 마르코 롱기니(지휘)

대망의 시리즈 마지막 음반, 온전한 갈무리를 위한 각별한 고민의 결과물
몬테베르디가 남긴 걸작 마드리갈 작품집, 마르코 롱기니가 이끄는 델리티에 무지카 18년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자락에 이르렀다. 몬테베르디 사후 출판된 〈마드리갈 9집〉에는 '음악의 유희'와 〈마드리갈 8집〉(8.573755–58)과 같은 제목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르코 롱기니는 이중에서 〈마드리갈 8집〉과 중복되는 작품들을 제외하는 대신 '음악의 유희'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9집〉 수록 작품만을 '온전히' 갈무리하고자 했다. 진중한 접근과 열정이 배인 역작, 강력 추천한다.

8573965
자이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6~10번
정혜진(바이올린), 워렌 리(피아노)

낭만시대의 걸작으로 승화시킨 정혜진의 감성적이면서도 완벽한 연주
프리드리히 자이츠는 후기낭만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로, 교육용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학생 협주곡〉은 그 대표적인 교육용 작품으로, 다양한 기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적 표현으로 가득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은 홍콩에서 니시자키를 사사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현재 홍콩에 거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감성적이면서도 완벽한 연주는 이 작품을 교육용을 넘어 낭만시대의 걸작으로서 승화시켰다.

8578174
우리가 사랑하는 클라리넷 작품들
(클라리넷을 위한 최고의 작품들)

가을의 서정 클라리넷, 사색적인 음색의 정수를 가려뽑은 음반
클라리넷은 오보에와 플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가을의 서정을 연상시키는 사색적인 음색만큼은 가을의 서정을 대표하는 음악가 브람스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결삭은 그윽한 색채를 갖고 있다.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1990년대 이래 최근까지 낙소스에서 발매된 명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클라리넷 작품들(클라리넷을 위한 최고의 작품들)을 선별했다. 영원을 바라보는 듯한 모차르트의 작품에서부터 클라리넷의 그윽한 색조를 극대화시킨 베버 그리고 고독과 정화의 체화를 담고 있는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작품 등 클라리넷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음반이다.

8578175
우리가 사랑하는 플루트 작품들
(플루트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

시간을 초월한 영감, 정교함과 우아함을 갖춘 플루트의 매혹스런 자태
플루트는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천상의 목소리를 닮은 매혹적이고도 정교한 음색은 바흐와 모차르트를 비롯한 작곡가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영감을 선사했다. 근대에 이르러 우아하지만 다루기 어려웠던 악기의 단점이 극복되면서 플루트는 클래식 이외 장르에서도 '주역'을 맡을 만큼 화려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1990년대 이래 최근까지 낙소스에서 발매된 명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플루트 작품들(플루트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을 선별해 플루트의 정수를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 초심자와 애호가, 전공자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음반이다.

8578178
우리가 사랑하는 오보에 작품들
(오보에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

여름을 연상시키는 활력과 다채로운 음색, 오보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음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보에. 플루트의 금빛 활력이 봄, 클라리넷의 그윽한 음색이 가을의 인상과 닿아 있다면 오보에의 싱그러운 활력과 다채롭고 독특한 음색은 여름날 아침의 녹색 인상을 떠오르게 한다.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알비노니와 헨델에서부터 생상스 등에 이르기까지 오보에를 대표하는 작품들의 백미를 낙소스 발매 최고의 음반에서 선별해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플루트(8.578175)와 클라리넷(8.578174)을 위한 최고의 작품들 역시 놓칠 수 없다.

8559862
코플랜드: 발레음악 작품집(빌리 더 키즈 & 크로크)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완전판으로 감상하는 코플랜드 발레곡의 묘미, 레퍼런스급 연주
흡혈귀 영화의 고전 '노스페라투, 공포의 교향곡'(1922), 새로운 음악을 찾아 파리로 떠난 아론 코플랜드는 이 영화를 본 후 '현대의 리듬과 불협화음'에 대한 충격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순간, 나디아 블랑제 집에서 열린 고별 파티에서 피아노 버전으로 선보인 '크로크'는 이후 관현악 버전으로 탄생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음악('미국적인 색채')을 펼치기 시작했던 코플랜드는 19세기 무법자를 소재로 한 자신의 대표작 '빌리 더 키즈'를 작곡했다. 코플랜드의 발레 음악 두 작품을 담고 있는 본 음반, 레너드 슬레트킨은 살아 숨쉬는 듯한 공감각적인 연주로 작품이 갖고 있는 영화적인 색채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완전판으로 감상하는 코플랜드 발레곡의 묘미, 레퍼런스 반열에 오를 만한 최고의 연주.

8559864
빅토리아 본드: 계시의 도구 & 프레스코 벽화와 재 & 레오폴드 블룸의 귀향 & 이진법
루푸스 뮬러(테너), 올가 비노쿠르 & 제니 린(피아노), 시카고 프로 무지카(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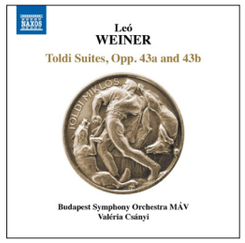
텍스트와 이미지 – 시대의 인상을 아우른 은유
클라라 슈만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비롯해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국의 여성 작곡가 빅토리아 본드의 최근작 4편이 수록된 음반이다. 타로카드 3장의 인상('계시의 도구'), 폼페이의 비극적인 운명('프레스코 벽화와 재'),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한 장면('레오폴드 블룸의 귀향'), 컴퓨터의 발전('이진법')에 담긴 텍스트와 이미지 – 시대의 인상을 아우른 은유. 독특한 선율과 극적인 감각으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그녀의 작품 세계는 물론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만한 음반이다.

8572999
피에르 아테냥: 하프시코드 작품집
글렌 윌슨(연주)

16세기 프랑스 건반 음악의 한 장면, 글렌 윌슨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음반
초기 음악 출판업자 중 한 사람이자 1537년에 프랑스 왕실 음악 서적 출판업자에 임명 되기도 했던 피에르 아타냥은 약 1500곡의 세속 성악 작품들과 류트 등 악기를 위한 작품들을 출판하였다. 1531년에 출판한 '건반음악 작품집'(전7권)은 그의 출판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글렌 윌슨은 뮌헨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에 소장(전 6권, 1권 소실)되어 있는 출판본과 다른 사본에 남아 있는 동시대 프랑스 건반 음악 작품들을 바탕으로 아테냥이 살았던 16세기 프랑스 기악 음악의 한 장면을 복원하고 있다. 글렌 윌슨의 열정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다.

8559858
트루먼 해리스: 콘체르티노와 실내악을 위한 작품집
– 겨울날 따뜻한 햇빛
앨리스 K. 웨인렙(플루트), 로렐 B. 올슨(호른), 트루먼 해리스(바순), 이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실비아 알리메나(지휘)

겨울에 꾸는 봄꿈 인상
미국의 작곡가 트루먼 해리스의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트루먼 해리스는 본 음반에서 연주를 맡고 있는 이클립스 챔버 오케스트라 및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NSO) 등에서 바순 연주자로 활약했다.
독창적인 악기 편성, 재즈와 왈츠의 리듬 그리고 낭만적인 색채의 매혹적인 어울림이 담긴 '두 대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보여주듯 그의 실내악 작품은 연주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한껏 살리고 있다.
겨울에 꾸는 봄꿈의 인상, 눈에 보일듯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리는 백일몽의 생생한 인상과 환상적인 분위기. 봄꿈을 머금고 질주하는 바순의 선율이 인상적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47

레오 베이네르: 교향시 《톨디》

MAV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발레리아 차니(지휘)

독일 낭만주의에 헝가리 전통을 접목한 대작, 호쾌하고 역동적인 질주를 살린 호연

20세기 헝가리 작곡가 레오 베이네르는 게오르그 솔티, 안탈 도라티, 페렌츠 프리차이, 프리츠 크라이슬러 등을 길러낸 교육자로 활약했다. 그는 헝가리 최고의 서사시로 평가받는 야노스 오로니의 3부작 서사시 《톨디》 중 1부를 배경으로 같은 제목의 교향시를 작곡했다. 레오 베이네르의 작품을 조명하고 있는 발레리나 차니는 《총고르와 튄데》(8.573491)에 이어 작곡가 또 하나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독일 낭만주의에 헝가리 전통을 접목한 작품의 색채, 삼손을 연상시키는 톨디의 '힘'과 영웅적인 면모를 살린 호쾌하고도 역동적인 질주가 돋보이는 호연, 작곡가에 대한 지휘자의 애정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8573881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엔리코 딘도(첼로),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봄꽃의 환희, 봄비의 우수 – 첼로와 피아노가 빚는 정교한 서정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기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말했듯 첼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악기였다. 세계 최초 녹음을 비롯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첼로와 피아노가 빚는 정교한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달새의 비상'을 연상시키는 '올빼미(야행성) 체질'(6번 트랙)의 선율, '콜 니드라이(신의 날)'의 반향을 닮은 '콜 니드라이 명상'(13번 트랙) 등 봄꽃의 환희와 봄비의 우수를 연상시키는 인상은 아련하게 가슴 한 구석을 휘감는다. 테데스코의 작품들과 '노년의 과오' 시리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알레산드로 마랑고니의 활약이 눈부시다.

*** '소나티나(Op.130)'(3–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898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 기타 작품 5집

세릴 레픽 카야(연주)

파라과이 정글에서 온 기타의 파가니니, 일생에 걸친 기교와 서정의 향연

니추가 망고레 또는 아구스틴 피오 바리오스로도 알려진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는 '파라과이 정글에서 온 기타의 파가니니'로 알려졌다.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로서 면모를 조명하는 시리즈 5집에는 생애 전시기에 걸친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다. 망고레 최후의 트레몰로, '신의 사랑으로 구원을'(4집, 8.573897)에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못지않은 연주로 감동을 자아냈던 세릴 레릭 카야는 세바스찬 이라이어의 '라 팔로마(비둘기), 하네바라'(망고레 편곡 버전)로 갈무리 되는 작곡가 일생의 기교와 서정을 매끄러운 기교와 매무새로 조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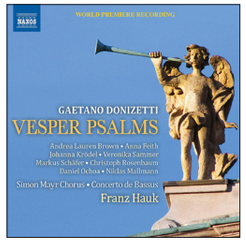
8573908

마가리카 그리츠코바: 러시아 가곡 리사이틀

마가리타 그리츠코바(메조소프라노), 마리아 프린츠(피아노)

러시아의 잠 못 드는 밤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 출신 메조소프라노 마가리타 그리츠코바는 2008년 마리스 얀손스에 의해 '카르멘'의 주연으로 발탁(상트 페테스부르크 음악원 오페라 극장)된 이후 잘츠부르크 음악제, 로시니 음악제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차이코프스키와 림스키 코르사코프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가곡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그녀는 중저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러시아의 잠 못 드는 밤, 향수와 애수의 멜랑콜리에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봄날의 기대, '샘물(Spring waters)'의 여운이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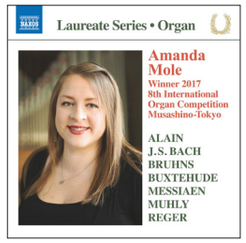
8573910

도니제티: 저녁기도 시편성가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소프라노), 요한나 크뢰델(알토), 마르쿠스 쉐퍼(테너), 다니엘 오초아(베이스), 지몬 마이어 합창단(합창), 콘체르토 드 바수스(연주), 프란츠 하우크(지휘)

화려하면서도 오롯한 선율과 너른 스케일, 한층 호소력을 갖는 기도

오늘날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도니제티의 음악 여정은 종교 음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니제티는 스승인 지몬 마이어의 지도 아래 1822년 무렵까지 종교음악에 치중하다가 이후 오페라로 관심을 옮겼다. 모두 150여 곡을 남긴 종교 음악 작곡가 도니제티의 면모는 물론 종교와 오페라를 극적으로 결합한 작품의 색채를 빼어난 해석으로 조명하고 있는 프란츠 하우크는 도니제티와 지몬 마이어의 결합을 보여준 음반(8.573605)에 이어 도니제티의 '저녁기도와 시편 성가'를 세계 최초로 녹음했다. 화려하면서도 오롯한 선율과 너른 스케일 위에 기도는 한층 호소력을 갖는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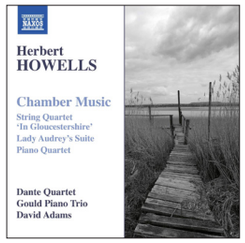
8573912

아만다 몰: 오르간 리사이틀

아만다 몰(오르간)

제8회 무사시노 국제 오르간 콩쿠르 우승 기념음반

2016년 마이애미 국제 오르간 콩쿠르 1위와 관객상에 이어 2017년 제8회 무사시노 국제 오르간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뛰어난 면모를 드러낸 아만다 몰은 《디아파종》 선정 차세대 유망주에 이름을 올렸던 촉망받는 연주자이다. 무사시노 콩쿠르 우승을 기념하는 본 음반에서 그녀는 무사시노 시민 문화 회관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간(MARCUSSEN & SØN)과 자신의 잠재력 그리고 오르간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묵직하면서도 거침없는 흐름과 확신에 찬 터치, 막스 레거의 '토카타'가 특히 인상 깊다.



8573913

허버트 하웰스: 실내악 작품집

데이비드 아담스(비올라), 단테 사중주단 & 굴드 피아노 삼중주단(연주)

가슴 시린 향수, 전원을 타고 흐르는 바람의 향방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하버트 하웰은 그의 대표작들이 자리한 교회 음악과 합창 음악뿐만 아니라 실내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도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본 음반의 수록 작품인 1910년대 중후반, 작곡가의 황금기에 탄생한 실내악 작품 3곡은 본 윌리엄스 만큼이나 영국 남부 전원의 인상을 물씬 머금고 있다. 아련하게 펼쳐지는 선율과 이에 얽혀드는 하모니 그리고 가슴 시린 향수는 전원을 타고 흐르는 바람의 향방처럼 종잡을 수 없이 기쁨과 우수를 넘나들며 매혹적인 반향을 자아낸다. 강력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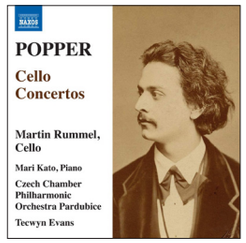
8573915

카탈로니아 작곡가들의 관악기를 위한 작품 2집

조너선 캠스(더블베이스), 바르셀로나 심포닉 밴드(연주), 살바도르 브로톤스(지휘)

카탈로니아의 정열과 향수를 머금은 장엄한 스케일과 활력 그리고 재치

카탈로니아의 전통과 풍광을 담은 1집(8.573547)에 이어 살바도르 브로톤스가 이끄는 바르셀로나 심포닉 밴드는 카탈로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4인의 관악 작품을 선보인다. 사비에르 몽살바헤의 '일요일을 위한 음악'은 타악기의 활력과 관악기의 재치를, 호안 아마고스의 '주제별 게임'은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는 테마들의 매력적인 밀당을,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엘리산다 파브레가스의 '교향곡 1번'은 장엄한 스케일 속에 카탈로니아의 향수를 잔뜩 머금고 있다. 지중해의 멜랑콜리(애수와 서정 그리고 리듬)를 내뿜는 모이제스 베르트랑의 '더블베이스 판타지'는 음반의 백미이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930

다비드 포퍼: 첼로 협주곡 작품집

마르틴 루멜(첼로), 마리 카토(피아노), 파두리체 체코 첨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테츠윈 에반스(지휘)

작곡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담긴 작품, 작곡가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음반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인 다비드 포퍼는 슈만과 하이든 그리고 생상스 '첼로 협주곡'에 자신의 색채를 더했으며, 브람스 '피아노 3중주 3번'을 초연하기도 했다. '헝가리 광시곡'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다비드 포퍼의 진가는 첼리스트의 필수 작품인 '고등(고급) 연습곡'(8.557718–19)과 첼로 협주곡에서 드러난다. 작곡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담긴 '첼로 협주곡' 전곡(알프레도 피아티에게 헌정된 '첼로 협주곡 4번'은 피아노와 첼로 버전)을 만날 수 있는 음반. 작품의 재치와 그윽한 반향을 살린 마르틴 루멘의 연주와 포퍼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8573946

멘델스존: 초기 피아노 작품집

세르히오 몬테이로(피아노)

비범한 재능이 엿보이는 푸가, 천재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명민한 터치

재능과 환경,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었던 예술가. 천재적인 음악가의 대명사 멘델스존의 비범한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다. 당대 어느 작곡가보다도 현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이었던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는 10대에 작곡된 작품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록 작품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바흐에 대한 경의와 애정이 담긴 '푸가'는 본 음반에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제2회 아르헤리치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르히오 몬테이로는 스카를라티(8.573611)와 리스트(8.573485)에서 보여준 명민한 터치로 멘델스존의 천재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8573948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작품집

듀오 델로로(연주)

두 목소리의 유쾌한 어울림, '멋진 인생(라 부에나 비다)'

기타리스트 아담 델 몬테와 마크 그르기치가 결성한 듀오 델로로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상을 두 대의 기타로 선보인다. 알베니즈와 그라나나도스에서 부터 앙헬 비욜도와 카를로스 가르델 그리고 히나스테라와 엑토르 스템포니에 이르는 여정 – 생생한 리듬과 달콤쌉사름한 서정의 향연, 이베리아 반도의 낭만과 라틴 아메리카의 리듬을 아우르는 흥취는 매혹 그 자체이다. 음반 제목인 '멋진 인생(라 부에나 비다)'에 걸맞는 두 목소리의 유쾌한 어울림, 음반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아담 델 몬테의 두 작품은 잊을 수 없는 여운을 한껏 고조시킨다.

8573958

보케리니: 스타바트 마테르(G. 532, 1781 초판) & 현악 사중주(G. 234) & 현악 오중주(G. 348)

도미니크 라벨(소프라노), 사라사 앙상블(연주)

결삭은 단순함, 열정적인 힘과 서정을 갖춘 작품

'미뉴에트'로 잘 알려진 보케리니, 그는 생전에 첼로 연주자로도 유명했다. 보케리니의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실내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주자로서의 면모도 짐작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현악 오중주'는 같은 장르 120여 편의 작품이 말해주듯 작곡가의 각별한 애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수록 작품 중 후에 관현악 버전으로 다시 탄생하는 《스타바트 마테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타바트 마테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현악 5중주(G. 348)'의 결삭은 단순함, 열정적인 힘과 서정을 머금은 색채와 함께 피어오르는 '정화'의 잔향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감흥을 안겨준다.

8573961

티모시 케인: 기타 리사이틀

티모시 케인(기타)

아련한 수평선, 아른거리는 기억 그리고 꿈의 인상

'평화와 조화'라는 인류 보편의 꿈 이외에도 가족과 사랑 또는 이상 등 우리는 가슴 속 한 구석 꿈을 안고 산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타연주자 티모시 케인이 네 명의 작곡가들에게 의뢰한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이러한 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천 년 전 동굴 벽화를 통해 예술가의 소망을 묘사한 '잊힌 꿈의 소나타', 가족에 대한 헌사가 담긴 '내 아버지를 위한 노래', 하이쿠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금붕어 모음곡', 호주의 동부 해안 풍경이 아련하게 펼쳐지는 '모스트루퍼 피크', 익살스런 분위기가 인상적인 '5개의 바카텔'의 인상들, 아련한 수평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지나간 기억 또는 잊힌 꿈은 달콤하면서도 아리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4012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8 & 23번(이그난츠 라흐너 편곡 버전), 《마술피리》(발췌, 현악사중주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버전, 작자 미상)

디디에 카스텔-자코멩(피아노), 빈 챔버 심포니 오중주단(연주)

중저음 파트의 반향을 극대화 시킨 이그난츠 라흐너 편곡 버전의 매력

이그난츠 라흐너는 모차르트가 남긴 27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12곡을 실내악 버전으로 편곡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라흐너 이외에도 19세기 지그문트 레베르트, 이마누엘 파이스트에 의해서도 편곡되었는데, 라흐너 버전의 묘미는 관현악 파트의 반향(특히, 현악 오중주에 더블베이스를 추가해 중저음 파트의 반향을 극대화 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피아노 협주곡 8번'의 경쾌한 분위기, 원곡 못지않은 작법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23번', 작자 미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마술피리》의 매력적인 색채, 이미 출시된 작품(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 8.573398 & 8.573736)와 함께 관심 가질 만한 시리즈이다. *** '피아노협주곡 8번'(이그난츠 라흐너 편곡 버전), 세계 최초 녹음.**

8574021

안토니오 솔레르: 건반소나타 작품집(87–92번)

쇼레본 아바지안(피아노)

하프시코드를 연상시키는 밝고 선명한 음색 & 민첩한 터치

스페인 엘에스코리알궁의 마에스트로 디 카필라(카펠마이스터)이자 오르간 연주자, 스카를라티의 제자로 유명한 카탈로니아 출신의 작곡가 안토니오 솔레르는 총 150여편의 건반소나타를 남겼다. 사무엘 루비오 신부에 의해 1957~1962년 사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솔레르의 '건반소나타'는 솔레르의 작품 세계는 물론 스승인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그리고 당대 유럽 음악과 교감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음악을 알려주는 자료로 남아있다.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 87–92번'이 수록된 시리즈 9집에는 제63회 마리아카날스 국제 콩쿠르(2017년) 우승자인 레본 아바지안이 참여했다. 하프시코드를 연상시키는 밝고 선명한 음색과 민첩한 터치, 다른 연주자와 확연히 구분되는 레본 아바지안의 연주는 솔레르의 재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낭랑하다.

8574025

라흐마니노프: 24개의 전주곡(전주곡 작품집, Op.3 No.2 & Op.23 & 32)

보리스 길트부르크(피아노)

작곡가의 자화상에 투영된 연주자의 자화상

지난 1월 내한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보리스 길트부르크의 신보. 피아노의 최고봉, 차갑고도 오롯한 열정으로 기교와 서사를 아우르는 수연을 보여줬던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거쳐 그는 다시 라흐마니노프로 발걸음을 돌렸다. 18년에 걸쳐 작곡된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은 바흐와 쇼팽 이래의 전통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작곡가의 자화상이라 해도 좋을 법한 작품이다. 길트부르크는 연주자로서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듯 자신의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자화상'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 내한 공연 첫 날 앙코르곡으로 연주하기도 했던 '13개의 연습곡'(Op.32) 중 5번(16번 트랙), 섬세하면서도 투명한 힘은 라흐마니노프의 말을 상기시킨다. "음악은 가슴에서 솟아나 오로지 가슴으로 얘기를 걸어온다". 놓칠 수 없는 음반.

8579026

파블로 오티즈: 합창음악 작품집

키카와 타카(첼레스타), 메리디오날리스(합창), 제바스티안 주비에타(지휘)

시대를 초월한 변용의 배력

아르헨티나 출신 작곡가 파블로 오티즈의 합창 음악 작품집. 최근작을 위주로 선별된 수록 작품들은 작곡가가 과거를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압축하고 있다. '각성'의 순간을 일깨우는 첼레스타의 반향이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그레고리안의 옥수수밭〉이 보여주듯 그의 작품은 학부시절 익혔던 그레고리오 성가를 기반으로 펼쳐진다. 토마스 하디와 리차드 블랑코의 텍스트 그리고 16세기 이탈리아의 마드리갈 등을 자신의 색채로 '변용'하는 그의 음악은 세계와 '자신'을 매개하는 '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변용의 매력, 모차르트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슬픔의 날)' 선율이 등장하는 〈3명의 소프라노를 위한 마르틴 피에로 극장 모음곡〉 한 대목(19번 트랙)은 잊지 못할 여운을 선사한다.

8579032

타마라 콘스탄틴: 꿈(몽상)

유-미엔 선(바이올린), 지아신 로이드-웨버(첼로), 타마라 콘스탄틴 & 마르크 베르테르(피아노)

전원의 영감 그리고 사랑의 발라드, 유키 쿠라모토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감수성

그루지아 출신의 작곡가 타마라 콘스탄틴, 석유 업계와 언론계를 거쳤던 그녀의 다소 특이한 경력 배경에는 언제나 음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파운드베리와 채플헤이 등 목가적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박하면서도 꿈결처럼 아련한 흐름, 베토벤의 '월광'과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의 선율 위에 자신의 인상을 더하고 있는 작품 세계의 특징적인 면들을 두루 접할 수 있다. 엔드류-로이드 웨버의 반려로 유명한 지아신-로이드 웨버를 위해 작곡한 '첼로 소나타'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의 가족 수난사가 담긴 '피아노 소나타 3번'은 음반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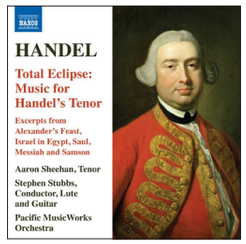
8573449–50 [2CDs]

베를리오즈: 극적 교향곡 《로미오와 줄리엣》 &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 서곡 & 《리어왕》 서곡

마리옹 레베그(메조 소프라노), 줄리앙 베어(테너), 프레드릭 카통(바리톤), 스피리토 & 리옹-베르나르 테투 합창단과 솔리스트(합창),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셰익스피어 '서사의 힘'을 극대화 시킨 대작, 극적 흐름과 균형감이 돋보이는 호연

'일생의 사랑' 해리에트 스미드슨과의 일화가 담긴 《환상교향곡》의 탄생 배경이 보여주듯 베를리오즈는 셰익스피어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베를리오즈는 작품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셰익스피어 '서사의 힘'은 텍스트의 효과를 오롯이 그리고 극대화 시키려 했던 베를리오즈에게 전범으로 삼을 만한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극적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로미오와 줄리엣》은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다른 작품들보다 장대하면서도 바그너가 '19세기의 멜로디'라 불렀을 만큼 혁신적이고 극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음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베아트리체와 베네딕트》 서곡과 《리어왕》 서곡에 이르기까지 레너드 슬레트킨은 작품의 흐름과 균형감을 두루 갖춘 해석으로 호연을 이끌어낸다.



8573914

헨델: 헨델의 테너를 위한 음악들(토탈 이클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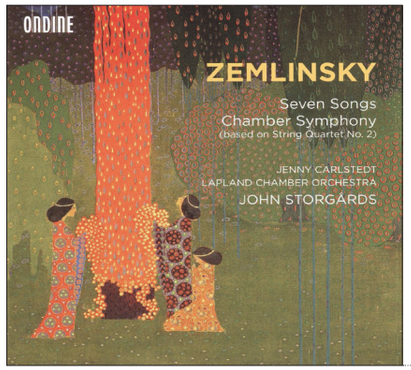
아론 시한(테너), 스테판 스텁스(류트 & 기타, 지휘), 퍼시픽 뮤직 웍스 오케스트라(연주)

개기일식, 영혼의 짝 – 헨델의 테너 존 비어드와 관계 깊은 작품들

감독(작가)와 배우, 작곡가와 연주자. 양자는 서로의 이상을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감한다. 서로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이 '영혼의 짝(때로는 일생의 반려자)'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자주 등장한다. 개기일식(토탈 이클립스)를 연상케 하는 '지음'의 관계, 헨델에게는 존 비어드가 있었다. 본 음반은 《메시아》, 《사울》, 《삼손》 등 헨델의 테너로 유명한 존 비어드와 관계 깊은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선별하고 있다.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자연스런 흐름, 말끔한 녹음, 화려함 속 깊은 감정의 아우라를 내뿜는 테너 아론 시한의 음성은 헨델 당시의 감흥을 상상케 할 만하다.

Ondine

www.ondine.net



ODE1272–2

첼린스키: 일곱 개의 노래, 실내교향곡(현악사중주 2번 편곡)

예니 칼스테트(메조소프라노), 라플란드 챔버 오케스트라, 욘 스토르고르(지휘)

말러와 쇤베르크 사이에서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펼친 최후의 낭만주의자

첼린스키는 말러와 삼각관계였었으며, 쇤베르크의 유일한 스승이자 처형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물관계는 첼린스키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순수한 선율과 투명하고 산뜻한 음색은 말러와 가까우며, 근대적인 일탈은 초기의 쇤베르크를 떠오르게 한다.
이 음반은 이러한 첼린스키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일곱 개의 노래〉는 말러의 가곡을, 〈실내교향곡〉은 쇤베르크의 동명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첼린스키는 말러와 쇤베르크 사이의 완벽한 가교가 된다. 여기에는 리하르트 뒨저의 관현악 편곡 덕택도 적지 않다.

ODE1324–2

모차르트, 후멜, 로시니, 빈터/바순 협주곡

야코 루오마(바순), 타피올라 신포니에타, 야네 니소넨(지휘)

고전 시대의 기품과 활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최고의 앙상블

티피올라 신포니에타는 빈의 고전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핀란드의 대표적인 클래식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다. 이 음반에서는 이 단체의 전문 분야인 모차르트와 후멜, 로시니, 빈터 등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연주하여, 급변하는 시대의 기품과 활력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독주를 맡은 핀란드의 바수니스트 야코 루오마는 크루셀 콩쿠르와 뮌헨 ARD 콩쿠르 입상자로서,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솔리스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타피올라 신포니에타의 수석 바수니스트이다.

ODE1333–2 **[SPECIAL PRICE]**

온딘(Ondine) 레이블 카달로그 이벤트 구성: 카탈로그 (200페이지 카탈로그) + CD (C.테츨라프/멘델스존+슈만 바이얼린 협주곡, 환상곡)

1985년 설립된 핀란드의 대표 레이블 온딘의 카탈로그와 독일 출신의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환상곡)의 음반(ODE1195–2)이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ODE1314–2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번(쇤베르크 편곡)/ 페리: 브람스를 위한 비가

예블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이메 마르틴(지휘)

브람스의 후예를 자처했던 쇤베르크의 편곡과 브람스에게 바치는 페리의 노래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1번〉는 20대 말에 작곡된 그의 중요한 실내악곡 중 하나로, 그의 세 곡의 피아노 사중주곡 중 첫 곡이다.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20세기 초 바그너의 추종자로 인식되었지만, 사실 브람스가 지켰던 전통과 그가 보여주었던 새로움을 이어받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편곡은 이를 보여주는 결과물로, 브람스적인 관현악으로 재탄생시켰다. 허버트 페리는 낭만시대 영국의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브람스를 위한 비가〉는 강렬한 감정과 세련된 표현, 그리고 안정감 있는 관현악이 돋보이는 명작이다.

ODE1325–2

B. A. 침머만: 병사들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포토프토시스

아누 콤시(소프라노), 예니 파칼렌(알토), 힐러리 서머스(콘트랄토), 페터 탄치츠(테너), 빌레 루사넨(바리톤), 유하 우시탈로(베이스),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한누 린투(지휘)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20세기 소리 예술의 결정체

베른트 알로이스 침머만은 20세기를 빛냈던 독일 작곡가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연주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양식을 사용하면서 높은 설득력과 뛰어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그의 대표작은 오페라 〈병사들〉로, 이 음반에는 이 곡의 일부로 재구성된 〈병사들 교향곡〉이 수록되어있다. 다양한 양식의 음악이 뒤섞여있지만 어색함 없이 음악의 메시지에 놀랍도록 충실하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고전적인 양식으로 작곡되어있으며, 〈포토프토시스〉에서는 다양한 인용과 음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ODE1339–2

슈만: 네 대의 혼을 위한 소협주곡/ 생상스: 연주회용 소품/ 글리에르: 혼 협주곡

마르쿠스 마스쿠니퉈(혼), 스톡홀름 왕립관현악단, 사카리 오라모(지휘)

풍부한 사운드와 따뜻한 음색, 선율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중요한 혼 협주곡들

혼은 관현악에서 현과 목관, 금관의 균형을 맞추고 관현악 전체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혼을 '관현악의 허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음반은 관현악에서 벗어나 독주악기로서 혼의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중요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슈만의 〈소협주곡〉은 무려 네 대의 혼이 독주자로 등장하여 혼의 강력한 팡파르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생상스의 〈연주회용 소품〉과 글리에르의 〈혼 협주곡〉은 중요한 혼 레퍼토리로서, 혼의 풍부한 사운드와 따뜻한 음색, 그리고 선율악기로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껏 전한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96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브렛 딘: 11개의 우회전략

안드레이 이오니처(첼로)

"최근 10년 안에 등장한 가장 흥분시키는 첼리스트 중 한 명" (더 타임스)

루마니아 출신의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니처는 201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과 2016~18년에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 선정 등 돋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첫 곡으로 수록된 바흐의 〈모음곡 1번〉은 20세기의 거장들을 떠올리게 하며, 프레이즈를 짧게 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연주를 들려준다. 코다이의 위대한 〈소나타〉에서는 비극적 감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브렛 딘의 〈11개의 우회전략〉은 놀랍도록 섬세한 표현을 들려준다. 헨리슨의 〈블랙 런〉은 컨트리 뮤직과 접목한 대단한 속도감으로 짧은 길이가 무색하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OUR Recordings

8226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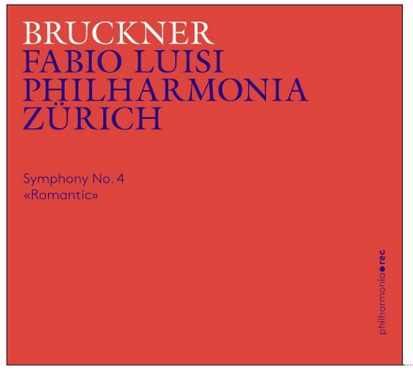
아메리카의 리코더 협주곡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노르딕 사중주단, 티볼리 코펜하겐 필, 덴마크 국립 관현악단 등

우리시대의 악기로 재탄생한 리코더의 카리스마 넘치는 협주곡들

우리시대의 작곡가에게 리코더라는 악기는 더 이상 고악기가 아니다. 고유의 독특한 음색으로 작곡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우리시대의 악기이다. 이 음반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네 명의 미국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리코더 협주곡을 수록했다. 시에라의 협주곡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서와 열정적인 리듬을 담아냈으며, 20년 이상 LA필하모닉의 상임작곡가를 지낸 스터키의 〈전주곡〉은 리코더의 다양한 표현들로 흥미를 끈다. 뉴먼의 〈협주곡〉은 바로크적 인상을 재창조하며, 히키의 〈평화의 무기〉는 웅장하고 강력한 대형 밴드에 맞선다.

Philharmonia Zurich www.philharmonia-zuerich.ch



PHILHARMONIA ZÜRICH

PHR0110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낭만적'

필하모니아 취리히, 파비오 루이시(지휘)

브루크너가 창조한 신비로운 세계로의 매력적인 여행

이탈리아인이 지휘하는 브루크너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면, 파비오 루이시가 지휘하는 이 음반이 그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릴 것이다. 새벽녘이 밝아오는 듯 긴장과 기대를 가득 머금고 서서히 시작되는 서주부터, 루이시는 브루크너의 신비로운 세계로 강하게 이끌어간다. 그리고 폭발하는 다이나믹과 역동적인 리듬으로 브루크너가 음악으로 그린 우주의 원리에 탄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장중한 사운드와 급하지 않은 템포도 큰 기여를 하는데, 루이시와 필하모니아 취리히는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특징들로 조화를 이루는 음악적 성취를 이뤄낸다.

Resonus Classics www.resonusclassics.com

resonus

RES10233

살롱 오페라

후유웨이(플루트), 요한 뢰핑(기타)

플루트와 기타가 함께하는 고전 음악의 살롱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음악은 신과 귀족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런 만큼 우리의 감성을 뒤흔드는 음악들로 오늘날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비르투오조의 시대를 연 파가니니와 감성의 민낯을 보여준 슈베르트, 오페라 혁명을 이끈 글루크, 낭만기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소르와 메르츠, 줄리아니 등. 이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벼운 리듬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대만 출신인 후유웨이는 바로크와 고전 전문연주자로서 18세기 스타일 플루트로 연주하며, 19세기 중엽의 기타로 멋을 더한다.

RES10235

퍼셀: '장미보다 달콤하게' 등 12개의 노래/ 코르베타: 기타 모음곡/ 드라기: 하프시코드 모음곡

안나 데니스(소프라노), 사운즈 바로크

영국 최고의 바로크 소프라노가 부르는 영국 최고의 거장 헨리 퍼셀의 노래

영국의 소프라노인 안나 데니스는 오늘날 특히 바로크 음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음반은 그녀가 특히 사랑하는 영국 최고의 거장 헨리 퍼셀의 노래를 수록하여 더욱 뜻깊다. 퍼셀은 '에어'(air)라고 부르는 영국의 예술가곡을 다수 남겼는데, 이들은 고귀하고 우아한 멜로디와 멜랑콜릭한 정서를 간직하며, 연주자에게 수준 높은 극적 표현력을 요구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열두 곡의 노래는 이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코르베타와 드라기의 기악 모음곡도 매우 흥미로우며 연주 또한 훌륭하다.

RES10236

루아예: 클라브생 작품집 1권

거침없는 타건과 적극적인 꾸밈음으로 들려주는 18세기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진수

루아예는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 출신으로, 20세에 파리로 이주한 후 1755년 50세에 세상을 떠날 때 까지 파리에서 살았다. 30세에 루이 15세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40대 초에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악단 '콩세르 스피리튀엘'을 지휘했다. 이 음반은 그의 대표작인 〈클라브생 작품집 1권〉 전곡을 수록하고 있다. 런던에서 공부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하야시 미에는 거침없는 타건과 적극적인 꾸밈음으로 화려한 18세기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스키타이인의 행진'은 마지막 트랙에서 들을 수 있다.

RES10238

북스테후데: 우리 예수의 몸

캠브리지 트리니티홀 채플 합창단, 오르페우스 브리타니쿠스, 뉴 비알레스, 앤드루 아서(지휘)

종교적 인식으로 가득한 북스테후데의 걸작에 대한 새로운 경이

북스테후데의 '우리 예수의 몸'은 발, 무릎, 손, 옆구리, 가슴, 심장, 얼굴을 주제로 하는 일곱 개의 칸타타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들은 고난의 길을 걸은 발, 땅에 꿇은 무릎, 못 박힌 손, 창으로 찔린 옆구리, 그리고 예수를 향한 찬송과 마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얼굴 등을 노래한다. 각 칸타타는 모두 기악으로 연주하는 서곡(소나타)으로 시작하여, 서너 곡의 합창 혹은 독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캠브리지 트리니티홀 채플 합창단은 종교적 안식을 주며, 독창을 맡은 '오르페우스 브리타니쿠스'는 중용을 지키며 고풍스럽고 고상한 음성을 들려준다.

SD&G www.monteverdi.co.uk

SDG731

스프링헤드 부활절 연극을 위한 음악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가디너가 젊은 시절에 구성했던 부활절 프로그램의 뜻깊은 재현

세계적인 고음악 거장인 존 엘리엇 가디너는 젊은 시절에 영국 남부 해안 중앙에 위치한 스프링헤드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합창단을 이끌고 부활절을 위해 음악극을 만들어왔다. 1963년부터 1984년까지 매해 가졌던 이 공연에서는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예수의 고난과 부활, 엠마오로 가는 길, 제자들과의 만남 등 부활 전후에 관련된 음악들이 연주되었으며, 약간의 연기가 곁들여졌다.
가디너는 이 때를 추억하며 당시 사용되었던 태버너, 탈리스, 버드, 가브리엘리, 제수알도, 쉬츠, 라인베르거, 브리튼 등의 음악을 모아 한 장의 음악으로 재구성했다.

Silk Road www.silkroadmusic.net

SRM043 [SACD] SACD & CD – PreMastering by Hans – Jorg Maucksch at Pauler Acoustics

첼로의 성가

쿤라드 블루멘달, 안드레스 디아스, 앤드루 마크(첼로), 발레리 트라이언(피아노)

아름다운 첼로 선율들로부터 얻는 평화와 안식

첼로에 대한 인상은 평화로움, 따스함, 안정감, 경건함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첼로 음악에는 마음을 녹이고 위로를 얻는 작품들이 많으며, 기도와 찬양 등의 종교적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인의 혹은 유대적인 첼로 음악들을 모은 이 음반은 이러한 첼로의 감성이 깊이 담겨있다. 베토벤 이후 가장 뛰어난 첼로 소나타로 손꼽히는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과 포퍼의 〈레퀴엠〉,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블로흐의 〈기도〉, 라벨의 〈카디시〉 등 아름다운 첼로 선율들이 현대인에게 더없이 필요한 평화와 안식을 선사한다.

SRM044 [SACD] SACD & CD – PreMastering by Hans – Jorg Maucksch at Pauler Acoustics

라레도의 바이올린 소품집

하이메 라레도(바이올린), 마르고 가렛(피아노)

라레도의 깊은 안목으로 완성된 거장들의 위대한 바이올린 소품들

볼리비아 출신인 하이메 라레도는 7세 때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중요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그는 비올라를 연주하기도 하며, 지휘자로서도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수많은 음반에서 차분한 해석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작은 소품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타이스〉, 〈유모레스크〉, 〈아베마리아〉, 〈헝가리 무곡〉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수록되어있는 이 음반에서, 그는 이 곡들을 화려한 '보여주는 음악'(Show Piece)을 넘어, 거장의 완숙한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라레도의 능력이다.

Simax www.grappa.no

PSC1372

감정의 예술

이노우에 유코(포르테피아노)

시대악기 연주로 고전음악과 감정 표현의 관계를 고찰한 보고서

18세기 중반에 만하임 악파의 감각적인 감정 표현과, '질풍노도'라고 불리는 과장된 감정 표현은 고전 시대로 진입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이 음반은 '질풍노도'로부터 이어지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와 하이든, 만하임 악파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모차르트, 그리고 고전을 완성하고 낭만의 문을 연 베토벤까지, 고전음악과 감정 표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한 음악 보고서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유명한 악기수집가인 에드빈 뵈엥크의 컬렉션 중 1780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를 사용하여, 당시 음악가와 청중이 들었을 소리를 재현한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WS016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 8번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지휘)

전원의 정취를 세심하게 표현한 조르당의 생명력 넘치는 해석

베토벤은 고전시대의 작곡가로 구분하지만, 그의 후기 음악은 이미 낭만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교향곡 6번 '전원'〉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섯 악장이라는 파격적인 악장 수와 특정한 주제를 묘사하는 표제 음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섯 악상의 교향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필리프 조르당은 이러한 묘사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비브라토, 다이나믹, 음길이 등 모든 음악적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만의 전원 교향곡을 들려준다. 〈교향곡 8번〉은 비엔나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한 호연이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93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 허쉬: 차이코프스키 변주곡

나타샤 파렘스키(피아노)

파워풀한 타건과 예술적 직관이 결합된 강렬한 연주

모스크바 출신의 나타샤 파렘스키는 9세에 캘리포니아에서 데뷔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음악원과 메네스 음대를 수학한 후 미국과 러시아, 유럽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의 연주는 파워풀한 타건과 예술적 직관이 결합되어 독특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서 거칠고 거리낌 없는 감정 표현으로 러시아적인 향취를 느끼게 한다. 프레드 허쉬의 〈차이코프스키 변주곡〉은 〈교향곡 4번〉 2악장 주제를 래그타임, 쇼팽, 스카를라티 등 다양한 스타일로 만든 흥미로운 변주곡이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473

자크-달크로즈: 피아노 음악 1집

아달베르토 마리아 리바(피아노)

색다른 율동감과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결합된 유럽의 낭만적 감성

스위스의 작곡가 에밀 자크-달크로즈는 파리에서 들리브와 포레로부터 배웠으며, 빈에서 브루크너와 푹스로부터도 수학했다. 그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력으로 남다른 포용력과 개성을 지닌 음악을 만들어냈으며, 빈에서 유래한 경쾌한 리듬과 파리에서 유래한 살롱 스타일이 결합하여 신선한 리듬으로 색다른 율동감을 전달한다. 이러한 스타일에 걸맞게 그는 소품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슈만의 성격 소곡 모음곡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초기작 〈스케치〉, 〈세 개의 소품〉 등은 이러한 자크-들로즈의 음악세계를 투명하게 들려준다.

UR Text

www.urtextonline.com

JBCC276

물과 포도주

후안 카를로스 라구나(기타), 이라세마 테라사스(노래), 미겔 앙헬 비야누에바(플루트), 구스타보 마르틴(첼로), 마리사 카날레스(플루트)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애수 가득한 서정미와 격렬한 춤곡 리듬의 향연

후안 카를로스 라구나는 제34회 도쿄 기타 콩쿠르와 멕시코 파라초 콩쿠르, 메트로폴리탄 대학 기타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현재 멕시코 국립 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이 음반에 라틴아메리카의 기타 독주와 이중주 작품을 녹음했다. 멕시코 최고의 작곡가인 망고레를 비롯한 여섯 작곡가의 작품들은 특유의 애수 가득한 서정미와 격렬한 춤곡 리듬을 들려주며, 라틴아메리카의 풍경을 눈앞에 펼쳐놓는다. 또한 올리바의 〈사빈이여 영원히〉의 노래는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진정한 마음을 전하며, 이외에도 플루트, 첼로와 함께하며 감정의 깊이를 더한다.

낭만시대의 걸작으로 승화시킨 정혜진의 감성적이면서도 완벽한 연주

프리드리히 자이츠는 후기낭만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로, 교육용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학생 협주곡〉은 그 대표적인 교육용 작품으로, 다양한 기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적 표현으로 가득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정혜진은 홍콩에서 니시자키를 사사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현재 홍콩에 거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감성적이면서도 완벽한 연주는 이 작품을 교육용을 넘어 낭만시대의 걸작으로서 승화시켰다.

8573965

자이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6~10번
정혜진(바이올린), 워렌 리(피아노)

[수록곡소개]

SEITZ, F.: Violin Concertos, Vol. 2 - Nos. 6-10 / Op. 25

Violin Concerto No. 6 in G Major, Op. 31
1. I. Allegro moderato
2. II. Andante cantabile
3. III. Allegro giocoso

Violin Concerto No. 7 in D Minor, Op. 32
4. I. Allegro moderato
5. II. Andante sostenuto
6. III. Finale: Allegro giusto

Violin Concerto No. 8 in G Major, Op. 38
7. I. Allegro moderato
8. II. Largo
9. III. Allegro moderato

Violin Concerto No. 9 in D Major, Op. 50
10. I. Allegro moderato
11. II. Adagio molto cantabile
12. III. Allegro risoluto

Violin Concerto No. 10 in A Major, Op. 51
13. Allegro non troppo
14. Adagio
15. Lento energico
16. Allegro

Violin Concerto in A Minor, Op. 25 (version for violin and piano)
17. Allegro moderato
18. Maestoso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2907 [4K Ultra HD]

베르디: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

– 이 작품과 함께 하는 도밍고의 전성기는 그 끝이 없을 것이다
– 여전히 전성기! 도밍고의 눈물과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프로덕션

플라시도 도밍고(프란체스코 포스카리), 프란체스코 멜리(자코포 포스카리), 안나 피로치(루크레치아), 알비스 헤르마니스(연출), 미셸 마리오티(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이 작품과 함께 하는 도밍고의 전성기는 그 끝이 없을 것이다

2016년 밀라노 라 스칼라 실황으로, LA오페라 총감독이자 현존 최고의 스타 성악가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아들을 잃게 되는 고뇌에 찬 프란체스코 역을 맡았다. 그동안 도밍고와 함께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로열 오페라 등에서 호흡을 함께 해온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가 출연하여 두 사람의 안정된 호흡이 인상적이다. 소프라노 안나 피로치, 지휘자 미셸 마리오티의 합류는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준다. 연출을 맡은 알비스 헤르마니스는 같은 해에 있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후기작 '다나에의 사랑'을 올려 화제를 낳았던 인물. 그의 이 프로덕션과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은 국내에도 개봉하여 화제를 낳은 바 있다. 4K(2160p)의 화질의 영상은 성악진의 표정은 물론 알비스 헤르마니스 특유의 역사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무대를 섬세히 비춘다.

[보조자료]

–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연이 잘 되지 않는 베르디 초기작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공연 자체가 드문 작품이다.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 자코포를 구출하지 못하는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운명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러한 캐릭터는 정치 속에서 희생되는 가족사를 그린 '돈 카를로'의 필리포 왕과 닮아 있거나 '시몬 보카네그라'를 연상케 한다.

– 하지만 간결하게 압축된 줄거리와 빠른 사건 전개, 단순하면서도 긴박감 넘치는 음악은 '돈 카를로'보다 이 작품을 대하기 수월하게 한다. 그래서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이 잘 공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주인공 프란체스코 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성악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 이 작품이 2012년 9월 LA오페라에 오를 때부터 프란체스코 역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플라시도 도밍고의 명성과 열연은 스페인 발렌시아, 데아터 안 데어 빈, 로열 오페라 등으로 지속되는 동안에도 힘을 발휘했다. 이번 무대에서도 같은 역을 맡은 그의 존재로부터 눈을 떼려야 뗄 수 없다. 1막 3장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옛 심정이여'부터 3막 2장 '운명의 종소리인가'로 이어지는 도밍고의 음성은 그의 전성기를 연상케 한다. '섭외 0순위'의 테너로, 2016년 베르디 '가면무도회'로 내한하여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프란체스코 멜리는 '제2의 도밍고'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코포 역을 소화해내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는 루크레치아 역의 안나 피로치는 열의에 가득 차 있다. 1979년 태생의 젊은 지휘자 미셸 마리오티 지휘의 속도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은 극적인 흐름을 쥐었다 폈다 한다.

– 도밍고의 지속적인 출연으로 인하여 '포스카리 가문의 두 사람'는 곧 '도밍고'라는 도식이 굳어 있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알비스 헤르마니스의 연출이다. 무대에 많은 부분을 비워내고, 배경 막의 회화로 대체하는 그의 무대와 동선은 성악가들이 노래에 집중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끔 조각물을 등장시켜 입체감을 살려내기도 한다. 자막은 한국어 ·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일본어로 되어 있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45 [DVD]
Accentus ACC10445 [Blu-ray]

accentus music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275주년 기념공연 2018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 – 275주년 기념 모차르트 & 차이콥스키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275년이라는 '최고(最古)'를 기념하는 '최후'의 걸작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의 275주년 기념공연으로, 2018년 3월 15 · 16일 게반트하우스 실황물이다. 2018년 2월 취임 공연(accentus music ACC10443)에서 멘델스존 · 스테판 슐라이에르마허(1960~) · 베르크로 미래상을 제시했던 그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으로 악단의 전통과 역사를 살핀다. 두 곡은 작곡가의 역사에 있어서 '최후의 3대 교향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넬손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명확한 지시로 소리들을 깔끔하게 결구해나간다. 해설지(43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넬손스와 악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안 카트린 지메르만의 심도 있는 해설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의 275주년 기념공연으로, 2018년 3월 15 · 16일 게반트하우스 실황물이다.

– 안드리스는 24세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29세의 젊은 나이로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12대 음악감독으로 지명되었다. 2015년, 그는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로부터 2005~16년에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한 리카르도 샤이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이로써 넬손스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보스턴 심포니와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 넬손스는 기념비적인 무대를 위해 1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과 2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선보인다. 레퍼토리 선정의 콘셉트는 '최후'가 적합할 듯. 2018년 2월 22일 취임공연(accentus music ACC10443)에서 라이프치히의 작곡가 스테판 슐라이에르마허(1960~) 위촉곡, 베르크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교향곡 3번 '스코티시'를 선보이며 미래상을 제시했다면, 이 공연을 통해선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전통을 살핀다.

–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은 그가 남긴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걸작이다. 그의 교향곡 대부분이 장조로 된 반면 교향곡 25번과 함께 '단조'로 된 특징도 있다. 차이콥스키의 '비창' 교향곡도 교향곡 4번 · 5번과 함께 '최후의 3대 교향곡'으로 손꼽힌다.

– 지휘봉을 들지 않은 손으로 각 파트별로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그는 훌륭한 안내자와 여유로운 지휘자다. 음악 역시 그의 지시대로 결구가 명확히 맞아 떨어져 깔끔하다. '비창' 교향곡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작곡가의 표현을 최대한 존중한다.

– 본 레이블의 해설지(43쪽 분량, 독 · 영 · 불어)는 음악에 관한 해설로 충실하다. 넬손스의 일거수일투족과 LGO의 역사적인 공연을 기록하고 해설하는 음악평론가 안 카트린 지메르만의 심도 깊은 해설이 담겨 있다.

Accentus ACC20473 [2DVDs]

2019 출시–영상 다큐멘터리 '전쟁 혁명, 권력, 음악'

바렌보임, 게르기예프, 이반 피셔, 기돈 크레머, 피에르–로망 에마르, 스테판 슐라이어마허, 줄리아 소피 바그너, 블라디미르 스투펠 등(인터뷰 출연)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은 음악에게 있어 무엇이었나?

2019년 2월, 전세계에 출시된 다큐멘터리 '전쟁, 혁명, 권력, 음악'은 1부 '세계대전 시기의 음악'(1DVD, 54분), 2부 '러시아 혁명의 작곡가들'(1DVD, 54분), 3부 '음악과 권력'(2DVD)로 구성되었다. 3부 영상이 2장의 DVD에 담겼다. 쇤베르크 · 베르크 · 쇼스타코비치 · 프로코피예프 · 스크랴빈 · 부소니 등은 물론 이들에 비해 생소한 아르투르 루리에(1892~1966)의 삶과 작품도 디테일하게 다뤄진다. 작품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느끼고 이를 풀어내는 유명 음악가들의 인터뷰도 흥미롭다. 바렌보임과 서동시집오케스트라, 게르기예프, 이반 피셔, 피에르–로망 에마르, 스테판 슐라이어마허, 줄리아 소피 바그너, 블라디미르 스투펠, 기돈 크레머 등이 인터뷰에 함께 한다. 해설지(41쪽 분량, 독 · 영 · 불어)의 해설도 전쟁과 혁명, 권력과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보조자료]

***** "결국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는 3개의 영상물을 다시 보게 된다"(프랑크푸르트 런차우)***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음악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선에 군인으로 참가한 음악가도 있었고,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그려 인간의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조국의 승리를 염원한 이도 있었다.

– 2019년 2월, 전세계에 출시된 다큐멘터리 '전쟁, 혁명, 권력, 음악'은 당시의 역사를 돌아본다. 3부의 영상이 2장의 DVD에 담겨 있다. 1부 '세계대전 시기의 음악'(1DVD, 54분), 2부 '러시아 혁명의 작곡가들'(1DVD, 54분), 3부 '음악과 권력'(2DVD)이다.

– **[1부 · 2부]** 제1차 세계대전(1914~18)과 10월 혁명(1917) 시기에 교차된 희망과 비극과 그 속에서 희생된 음악가들을 살펴본다.

– **[3부]**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음악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논한다.

– 쇤베르크, 베르크, 프로코피예프, 스크랴빈, 부소니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생소한 작곡가들의 역사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아르투르 루리에(1892~1966)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출신의 그는 1920년대에 러시아음악계를 이끈 지도자이며, 러시아 아방가르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독일 · 프랑스 · 미국으로 망명했고, 후에 스트라빈스키의 영향 하에 신고전주의의 신봉자가 되었다. 프랑스 가톨릭으로 귀가한 그는 아르튀르 뱅상 루리에라는 개명으로 오늘날에 잘 알려져 있다.

– 무엇보다도 음악 작품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느끼고 이를 풀어내는 유명 음악가들의 인터뷰가 흥미롭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예프, 이반 피셔, 피에르–로망 에마르, 스테판 슐라이어마허, 줄리아 소피 바그너, 블라디미르 스투펠 , 기돈 크레머 등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 해설지(41쪽 분량, 독 · 영 · 불어)에는 방대한 정치인문학서를 인용한 보리스 슈마츠키의 해설이 수록되어 전쟁과 혁명, 권력과 음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78 [3DVDs]
Arthaus 109379 [3BDs]

필리프 조르당이 그려내는

2017/18 바스티유 실황 –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실황

필리프 조르당(지휘),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베토벤에 이어 차이콥스키에서도 어김없는 카리스마

2009/10 시즌부터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조르당(1974~)이 파리 바스티유에서 선보인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물로 교향곡 1번과 5번(2017 10월), 교향곡 2번과 4번(2018년 3월 27일), 교향곡 3번과 6번 '비창'(3월 15일) 실황을 담고 있다. 조르당은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기량을 파리 오케스트라 같은 콘서트 전문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14/15 시즌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영상물(Arthaus Musik 109248)을 통해 조르당의 특유의 사운드와 예술적으로 연출된 미장센에 감탄한 이라면 이 영상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조르당이 영어와 독일어로 구사한 인터뷰는 각 작품 해설은 물론 차이콥스키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를 살펴본다. 53쪽 분량의 해설지는 영 · 독 · 불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10월과 2018년 3월에 파리 바스티유에서 선보인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 박스물이다. 1 · 2부를 교향곡으로 구성하여, 교향곡 1번 '겨울날의 환상'과 5번(2017 10월), 교향곡 2번 '작은 러시아'와 4번(2018년 3월 27일), 교향곡 3번 '폴란드'와 6번 '비창'(3월 15일)으로 진행된다.

– 미하일 유롭스키와 블라디미르 유롭스키, 네메 예르비와 파보 예르비 등의 부자 지휘자들처럼 스위스 태생의 필립 조르당(1974~)은 아민 조르당(1923~2006)의 대를 이어 지휘봉을 잡고 있다. 1994/95 시즌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울름 시립극장 카펠마이스터가 된 그는 다음 시즌에 브뤼셀의 모네 왕립극장에서 데뷔했다. 1998~2001년에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다니엘 바렌보임의 조수로 일하며 독일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튼튼한 실력과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 덕분에 프랑스음악은 물론 독일-오스트리아 음악에도 다른 프랑스 지휘자들보다 훨씬 더 프랑스적인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영어는 물론 독일어도 능숙히 구사한다.

– 조르당은 2007년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출되어 2009/10 시즌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2014/15 시즌부터 빈 심포니의 상임지휘자로도 활동 중이다. 2020년부터 빈 국립오페라극장을 이끌 새 음악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 그는 빈 심포니의 기량을 단기간 내에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기량도 파리 오케스트라와 같은 콘서트 전문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바스티유 극장에서 5회에 걸쳐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가졌는데, 이 영상물은 2016년 발매와 함께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타이트한 긴장감과 치밀한 합주력, 특유의 드라마틱한 극적흐름과 디테일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은 차이콥스키를 다룬 이번 영상물에서도 변함이 없다. 전작처럼 화질과 음질도 모두 최상급이다. 화면의 콘트라스트와 다양한 앵글의 편집이 대단히 예술적이어서 시각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의 예술작품임을 실감하게 된다.

– 아트하우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전집에는 영상물마다 조르당이 영어와 독일어로 구사한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각곡에 대한 해설은 물론 차이콥스키의 삶과 영향을 준 민속문화, 교육적 환경과 예술세계, 차이콥스키 음악 지휘법,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작곡가의 영향 등을 해설한다. 53쪽 분량의 해설지는 영 · 독 · 불어로 구성되어 있다.

Arthaus 109346 [DVD]
Arthaus 109347 [Blu-ray]

벤 라이트 현대무용 '더 필링 오브 고잉(the feeling of going)'

벤 라이트(콘셉트 · 안무 · 무대감독), 스코네스 댄스시어터, 존시(음악), 모토 보이(노래), 말뫼 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동화의 강국 스웨덴이 낳은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무용

말괄량이 삐삐, 무민 등 동화의 나라 스웨덴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과 단체들이 합작한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현대무용이다. '호두까기 인형'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꿈의 여행'을 모티프로 한 이 작품은 어느 한 남자가 꿈속으로 들어가 신비의 자작나무 숲에서 여러 정령을 만난다는 줄거리다. 동화적이면서도 신비한 서사만큼이나 음악, 안무, 조명 등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통일성을 이룬다. 아이슬란드팝의 전설 존시(Jónsi)의 명반 'GO'에 수록된 음악을 재구성하여 클래식과 북유럽 팝의 묘한 만남도 인상적이다. 보너스 필름(12분/영어 진행)에는 콘셉트, 안무, 무대 감독을 맡은 벤 라이트의 심도 깊은 인터뷰가 실려 있다.

[보조자료]

– 북유럽 중 스웨덴은 동화의 강국이다.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셀마 라게를뢰프(1858~1940), 무민의 작가 토베 얀손(1914~2001) 등이 스웨덴 출신이다.

– 현대무용 '더 필링 오브 고잉'은 스웨덴의 현대무용가 벤 라이트와 스코네스 댄스시어터, 말뫼 오페라와 합창단이 합작한 한편의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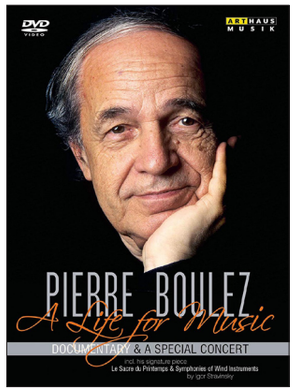
– 벤 라이트는 스코네스 댄스시어터의 감독으로 스코네스 댄스시어터(Skånes dansteater)는 스웨덴 스코네주 말뫼 시에 위치한 무용 제작 극장이자 무용단이다. 실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국적 안무가 및 무용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무용의 예술적 ·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 이 작품은 '호두까기 인형'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꿈의 여행'을 모티프로 한다. 잠자고 있던 남자는 꿈에 빠져들고 꿈속에서 나무로 된 작은 집으로 향한다. 이후에 펼쳐지는 배경의 대부분은 집이 위치한 자작나무 숲이다. 자작나무의 배경에서 요정들, 거인, 숲 속에 숨어있는 많은 생명체와 정령들이 함께 한다. 숲 속으로 내리는 눈송이는 특수효과로 처리하여 작품 감상의 묘미를 더한다.

– 보너스 필름(12분/영어 진행)에는 콘셉트, 안무, 무대 감독을 맡은 벤 라이트의 심도 깊은 인터뷰가 실려 있다.

– 클래식과 팝의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라면 반드시 음악에 주목할 것. 아이슬란드팝의 전설 존시(Jónsi)의 명반 'GO'에 수록된 음악을 재구성했고, 스웨덴 가수 모토 보이(Moto Boy)가 숲의 정령처럼 분하고 출연하여 노래를 부른다. 물 속을 편안히 헤엄쳐나가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의 사운드이다. 서사와 무용이 지닌 몽환적인 성격을 배가시킨다.

– 스웨덴 현지의 홍보 문구는 이렇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하려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특별한 꿈의 세계로의 매혹적인 여행. 그곳은 팝, 오페라, 춤, 연극이 어우러지는 지평선이기도 합니다. 삶과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가득 찬 환상적인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Arthaus 109350 [2DVDs]

불레즈 다큐멘터리 '음악을 위한 삶' & 지휘 영상

피에르 불레즈(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불레즈 삶과 음악을 담은 영상 백과사전

피에르 불레즈(1925~2016)의 음악인생이 담긴 다큐멘터리(DVD1)와 지휘 영상(DVD2)으로 일명 '불레즈 백과사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영상물이다. 사후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불레즈와 긴밀했던 라이너 모리츠 감독이 제작하였다. 불레즈 슈발리에 자료실에 수장된 과거의 필름, 사진, 악보 등의 자료들이 대폭 재인용되었고, 친한 벗이자 2018년 파리 필하모니에서 제1회 불레즈 비엔날레를 개최했던 바렌보임, 작곡가 외트뵈시 등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영 · 독 · 불어 자막, 97분). 지휘 영상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촬영한 것으로 스트라빈스키의 관악 교향곡(1920)과 '봄의 제전'(1913)이 수록되었다. 두 곡 사이는 약 10분 정도 불레즈의 해설로 연결된다(영어 사용, 독 · 불어 자막 제공). 해설지(19쪽 분량)에는 다큐멘터리 감독 모리츠가 직접 작성한 불레즈론이 수록(영 · 불 · 독어)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6년 6월 서거한 피에르 불레즈의 음악인생이 담긴 다큐멘터리와 공연 영상이 동봉된 영상물이다.

– 1925년 프랑스 루아르 몽브리종에서 태어나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그는 1946년 미리니극장의 음악감독이 된 이후로도 총렬주의, 우연성, 전자음악 등을 통해 20세기 현대음악사에서 자신만의 영역과 음악적 정체성으로 새로운 감각을 다져나갔다. 그러던 중 지휘자로서 성공을 거두며 현대 음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영국 BBC심포니, 미국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등에서 수석 지휘자와 음악감독 등을 지낸 그는 분석적이지만 생동감 있는 작품해석과 개성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호평 받았다. 음악가로 명성을 얻은 그는 30여년 동안 정치권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파리 최빈곤 지역에 파리 필하모니 콘서트홀 개관에 혼신의 힘을 쏟기도 했다. 2018년부터 이곳에서는 불레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 1DVD가 작곡가의 생애를 담은 다큐멘터리라면, 2DVD는 지휘자 불레즈의 공연이다. 영상 다큐멘터리는 사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전의 불레즈와 긴밀한 사이였떤 라이너 모리츠 감독이 제작했다. 불레즈 슈발리에 자료실에 수장된 과거의 필름, 사진, 악보 등의 자료들이 대폭 재인용되었고, 친한 벗이자 2018년 파리에서 제1회 불레즈 비엔날레를 개최했던 바렌보임, 작곡가 외트뵈시 등 그의 음악을 존중했던 여러 예술가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영 · 독 · 불어 자막이 제공되고 약 97분 구성이다.

– 1DVD가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살펴보는 자료였다면 2DVD는는 지휘자 불레즈의 예술적 면모를 다시 만날 수 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에서 촬영된 것으로 스트라빈스키의 관악 교향곡(1920), '봄의 제전'(1913)이 수록되었다(관악교향곡 편성은 플루트4, 오보에3, 클라리넷3, 바순3, 콘트라바순1,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1). 두 곡 사이는 약 10분 정도 불레즈의 해설로 연결된다(영어 사용, 독 · 불어 자막 제공).

– 해설지(19쪽 분량)에는 다큐멘터리 감독 모리츠가 직접 작성한 불레즈론이 수록(영 · 불 · 독어)되어 있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63 [DVD]
BelAir BAC463 [Blu-ray]

2018 볼쇼이극장 실황 – 들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레오 들리브(작곡), 프티타(안무), 세르게이 비카레프(재안무), 파벨 소로킨(지휘), 볼쇼이극장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마르가리타 슈라이너(스와닐다), 아르템 오브차렌코(프란츠), 알렉세이 로파레비치(코펠리우스)

귀엽고 우아하기까지 한 인형 코펠리아의 탄생!

1870년 파리에서 초연 후 1884년 프티파가 마린스키 극장에 올리며 불후의 명작이 된 '코펠리아'는 레오 들리브(1836~1891)의 음악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2018년 6월 볼쇼이극장 실황물(95분)로 비카레프의 재안무버전이다. 스와닐다의 약혼남 프란츠가 코펠리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코펠리아가 자동인형임을 알아낸 스와닐다는 그 흉내를 내다가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는 동화같은 설정이다. 군무의 1막, 코펠리아로 변장한 스와닐다의 왈츠로 유명한 2막, 낭만적인 파드되의 3막. 모든 막이 화려하며 눈길을 잡아끈다. 특히 마르가리타(스와닐다역)의 매력은 낭만발레 특유의 무게를 상쇄할 정도의 밝은 경쾌감이다. 파벨 소로킨의 지휘는 마주르카, 차르다슈 등 민속적 리듬감이 돋보이며 로맨스의 질감이 풍부하다.

[보조자료]

– E.T.A 호프만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코펠리아'는 1870년 파리오페라발레에 의해 초연된 3막 구성작이다. 파리 공연이 거듭 대성공을 거두자 '코펠리아'는 1876년 덴마크에서, 1884년에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에 의해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되었고, 그때부터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

– 러시아에는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을 작곡한 차이콥스키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코펠리아'의 작곡가 레오 들리브(1836~1891)가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오페라와 발레음악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다. 19살부터 오페라 작곡를 시작했으며 30살부터 발레음악 작곡을 시작하여 '코펠리아' '실비아' 같은 걸작의 발레음악을 남겼다. 이로 인해 프랑스 발레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4월 12일에 전세계에 발매된 이 영상물은 2018년 6월 모스크바 볼쇼이극장 실황물로 95분 분량이다. 작품 버전은 푸티파와 체케티의 오리지날 안무를 세르게이 비카레프가 재안무한 것이다. 스와닐다(마르가리타 슈라이너)는 애인 프란츠(아르템 오브차렌코)가 인형장인 코펠리우스(알렉세이 로파레비치))의 딸인 코펠리아(나덴츠다 블라코바)에게 은근히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스와닐다는 코펠리우스가 없을 때 몰래 그의 작업실에 들어가 본다. 이윽고 코펠리아가 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 스와닐다는 그 후 인형의 의상을 입고 코펠리아 행세를 하며 코펠리우스를 조롱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스와닐다는 프란츠와 화해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 1막 광장의 '마주르카'(4트랙), 스와닐다와 친구들이 추는 헝가리춤 '차르다슈'(8트랙), 2막에서 스펠리우스의 방에서 코펠리아로 변장한 스와닐다가 추는 '왈츠'(16~20트랙), 3막의 인상적인 파드되(27트랙) 등에서 작품은 물론 볼쇼이발레가 자랑하는 간판스타 무용수들의 기량과 군무의 호흡이 돋보인다. 특히 어떤 발레작품보다도 마임 표현이 많은 대목들에서 선보이는 희극적인 연기들도 재미를 더한다.

– 마르가리타(스와닐다역)의 매력은 낭만발레 특유의 무게를 상쇄할 정도의 밝은 경쾌감이다. 특히 약혼자 프란츠와 만나는 장면(3트랙)부터 생기발랄한 에너지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생동감은 살아 움직이는 인형인 코펠리아를 흉내 내는 2막에서는 더욱 최적이다. 성숙함이 느껴지는 3막의 결혼 파드되에서도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모든 '코펠리아'의 무대가 그렇듯 스타는 스와닐다지만, 아르템(프란츠역)도 마르가리타의 젊음과 생동감에 잘 어울리는 짝이고 종종 지나치게 우스깡스럽게 표현되는 코펠리우스를 동정가는 캐릭터로 표현하는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파벨 소로킨의 지휘는 마주르카, 차르다슈 등 민속적 어법과 리듬감이 돋보이며, 로맨스의 질감이 풍부하게 다가온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8308 **[DVD]**
C Major 748404 **[Blu-ray]**

2018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 푸치니 '토스카'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마이클 스터밍거(연출), 안야 하르테로스(토스카), 알렉산드르 안토넨코(카바라도시), 뤼도빅 테지에(스카르피아) 등

마피아의 세계로 들어간 토스카!

2018년 3~4월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물로 같은 시기 국내에도 중계된 프로덕션이다. 영화감독 스터밍거(1963~)의 연출은 범죄와 폭력세계의 삶을 다룬 필름 누아르로 그려낸다. 원작의 악덕 경찰 스카르피아가 마피아 두목로 설정되고, 그와 손잡는 토스카도 악녀가 된다. 연출적 설정이 이러하다 보니 틸레만 특유의 거대한 음향의 파도가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막힘없이 다가온다. 음량의 고저와 대비를 통한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그 어떤 음반과 영상물보다도 인상적이다. 연출가의 콘셉트가 담긴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 수록되어 있는 이 영상물은 2017년 같은 축제에 '발퀴레'로 데뷔한 안야 하르테로스의 물오른 활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2018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물로 3~4월 잘츠부르크 축제극장에 오른 푸치니(1858~1924)의 '토스카'이다. 이 프로덕션은 국내에도 같은 시기에 라이브 중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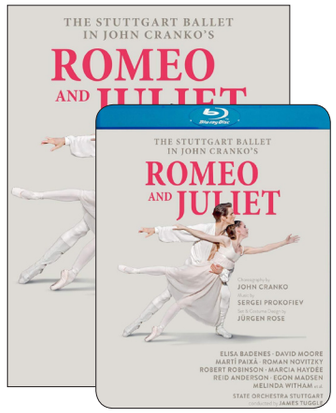
– '토스카'는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의 창시자 카라얀이 이 축제의 마지막 공연작으로 올린 작품이다. 당시 축제의 음악은 카라얀/베를린 필이 도맡았는데, 2013년부터는 틸레만/드레스텐 슈타츠카펠레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을 구하려는 토스카는 자신의 몸을 요구하는 경찰청장 스카르피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극한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성당에 기도하러 온 후작 부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마리아를 그리던 카바라도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토스카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부르는 '오묘한 조화', 총살형을 앞두고 토스카와의 즐거웠던 날들을 가슴 저리게 회상하며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등의 명아리아를 최고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오페라다.

– 2017년 부활절 페스티벌의 '발퀴레'로 데뷔한 안야 하르테로스가 타이틀롤을 맡았고, 신세대 스핀토테너 알렉산드르 안토넨코가 카바라도시역을, 바리톤 뤼도빅 테지에가 스카르피아역을 맡았다.

–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마이클 스터밍거(1963~)이 연출을 맡았는데, 그는 범죄와 폭력세계의 삶을 다룬 한편의 필름 누아르로 이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연출가의 콘셉트와 힘은 마피아 두목으로 설정된 스카르피아에게 집중된다. 그 어떤 프로덕션보다는 스카르피아의 악한 존재감이 강하게 다가오고 토스카도 결국 악당과 손을 잡는 악녀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원작이 지닌 비극적 사랑의 슬픔보다는 악한 자들이 마무리하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다가오게 한다. 마지막에 그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는 방식도 상대방의 가슴팍에 총구를 겨누는 것이다.

– 연출적 설정이 이러하다 보니 틸레만 특유의 거대한 음향의 파도가 비극적 무게와 함께 더욱더 다가온다. 막힘없는 선율처리와 함께 음량의 고저와 대비를 통한 다이나믹의 연출이 작품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비극적 서사도 극단화한다. 연출가의 콘셉트가 담긴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 수록.



C Major 801008 **[DVD]**
C Major 801104 **[Blu-ray]**

2017 슈투트가르트 발레 실황 – 존 크랭코 '로미오와 줄리엣'

존 크랑코(안무), 죄르겐 로제(무대디자인), 다비드 무어(로미오), 엘리사 배드니스(줄리엣), 마르시아 하이디(줄리엣 보모), 에곤 매드센(로렌스 수사), 죄르겐 로제(지휘), 슈투트가르트 극장 오케스트라 등

무대는 말한다. 이 작품이 왜 '위대한 역사'가 되었는지

존 크랑코(1927~1973)의 대표작인 '로미오와 줄리엣' 2017년 4~5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실황물이다. 1962년 개정본이 나오고 55년이 되는 해의 공연이다. 수석무용수인 무어(로미오)와 배드니스(줄리엣)의 발코니 씬과 달빛 아래의 파드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명장면(18~20트랙)이다. 현장감을 살린 입체적인 음향도 프로코피예프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 이 작품이 널리 알려지던 1960년대에 제1대 줄리엣으로 활약한 하이디(1937~)가 줄리엣의 보모로 출연하며 80세 생일을 축하하고, 그녀의 파트너들도 원로의 역할을 출연한다. 공연은 총 127분. 해설지(37쪽 분량/영 · 불 · 독어) 외에 보너스 트랙에는 마르시아 하이디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인터뷰 영상(90분/영어자막)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존 크랑코(1927~1973)는 1960년대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전성기를 이끈 안무가다. 그가 '로미오와 줄리엣' '오네긴'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업적은 명확하다. 춤이 드라마를 압도하던 발레의 전통을 딛고 연극적인 표현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 크랑코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958년 초연 이후, 1962년 슈투트가르트 발레를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 그 표현이 프로코피에프의 같은 곡을 사용한 러시아의 오리지널 안무들을 압도했기에 대단한 호평과 함께 서유럽 발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맥밀란, 그리가로비치, 누레예프, 프렐조카쥬, 마이요 등이 이 작품의 새 안무에 가담할 적에 그들의 목표는 '고전'이 된 크랑코 버전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 이 영상물은 2017년 4~5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실황물이다. 1962년 개정본이 나오고 55년이 되는 해의 공연이다. 생생하게 에칭된 캐릭터, 숨 막힐 듯한 사랑의 파드되, 화려한 액션의 칼싸움, 잘 정련된 군무, 원작의 배경지인 이탈리아 베로나를 완벽히 재현해놓은 듯한 섬세한 세트 등 크랑코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춤부터 무대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예술이다.

– 또 다른 특징은 마르시아 하이디(1937~)의 출연이다. 그녀는 1960년대에 이 작품이 널리 알려질 때 첫 줄리엣 역을 맡았던 프리마 발레리나다. 2017년, 80세 생일을 맡은 그녀는 줄리엣의 보모로 출연해 작품에 역사적 순간을 더한다. 그녀의 파트너였던 에곤 매드센(로렌스 수사), 레이드 앤더슨(카플렛 왕)도 원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수석무용수인 로미오 역의 다비드 무어와 줄리엣 역의 엘리사 배드니스는 다음 세대를 잇는 두 주역이다. 검은 배경에서 흰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발코니 씬과 달빛 아래의 파드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명장면(18~20트랙)이다. 제임스 터글의 지휘로 선보인 음악도 현장감을 잘 살려내도록 녹음하여 보는 이에게 입체감 있는 음향감을 제공한다.

– 공연은 총 127분. 해설지(37쪽 분량/영 · 불 · 독어) 외에 보너스 트랙에는 마르시아 하이디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인터뷰 영상(90분/영어자막)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7408 [2DVDs]
C Major 747504 [Blu-ray]

2017 파리 코미크오페라 실황
– 로시니 '오리 백작'

루이 랑그리(지휘),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레 엘레망 합창단, 드니 포달리데스(연출), 크리스찬 라크르와(의상), 필리프 탈보(오리백작), 줄리 푸치스(아델레), 가엘르 아르퀘즈(이졸리에)

파리를 웃긴 희극오페라와 차세대 프랑스 여성 성악가

2017년 12월, 파리 코미크 오페라극장 실황. 1828년 파리 국립오페라에서 초연된 '오리 백작'은 프랑스어 오페라로 소문난 바람둥이 오리(Ory) 백작, 그가 유혹하려는 백작부인 아델레, 아델레를 사랑하는 이졸리에(메조소프라노 바지역할)의 삼각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이 프로덕션은 시대적 배경을 잘 살렸으며, 유명 패션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의상이 패션의 나라에 오른 오페라임을 증명하며 시각을 즐겁게 한다. 필리프 탈보의 오리 백작 역만큼 빛을 발하는 것은 줄리 푸치스(아델레/소프라노), 가엘르 아르퀘즈(이졸리에/메조소프라노)이다. 1980년대 프랑스 태생의 그녀들은 비슷한 시대에 출생한 사비느 드비에일, 마리안느 크레바사 등과 함께 유럽 오페라의 차세대 성악가들로 주목 받고 있다. 해설지(17쪽 분량/불 · 영 · 독문)에는 로시니의 작품세계, 줄거리, 출연진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12월, 파리 코미크 오페라극장 실황이다. 이 극장은 당시 유럽 대륙을 장악하던 이탈리아 오페라로부터 프랑스 오페라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1714년에 창립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프랑스 작곡가들이나 불어 대본을 쓴 작품들이 오르는 메카로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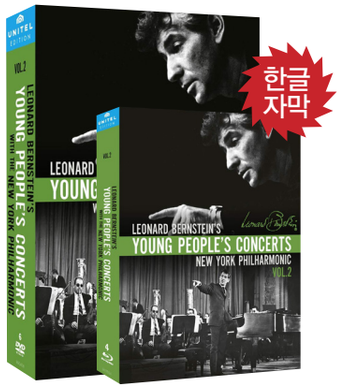
– 로시니(1792~1868)의 희극오페라 '오리 백작'은 로시니가 프랑스 청중을 위해 작곡한 프랑스어 오페라로 1828년 파리 국립오페라에서 초연되었다. 십자군 전쟁기인 13세기를 배경으로 삼각관계를 다룬다. 소문난 바람둥이인 오리(Ory) 백작은 남자들이 출정한 틈을 타 평소 맘에 두고 있던 백작부인 아델레를 유혹하려한다. 이를 위해 신통력 있는 은자로 가장하는가 하면, 그녀의 성에 들어가고자 수녀로까지 위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아델레를 사랑하는 이졸리에, 오리 백작의 행방을 추적하는 가정교사가 가세하며 포복절도할 한 편의 코미디가 만들어진다.

– 시대적 배경을 살린 드니 포달리데스의 연출과 유명 패션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라크르와의 의상이 영상의 멋과 품격을 높였다.

– 이 작품의 주요 선율을 1825년 랭스에서 열린 샤를 10세의 대관식을 위해 작곡한 오페라 '랭스로의 여행'에서 차용하였는데, 원작의 거대한 14중창을 재구성하여 '오리 백작'의 인상적인 중창 부분들을 구성하기도 했다. 루이 랑그리의 지휘와 샹제리제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완벽하게 구현해낸다.

– 오리 백작 역의 필리프 탈보(테너)는 파리 국립오페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프로덕션이 타이틀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노래실력에 주목한다면, 이 프로덕션에서 빛을 발하는 이는 아델레 역의 줄리 푸치스(소프라노), 이졸리에 역의 가엘르 아르퀘즈(메조소프라노)로 공연 후 르 몽드지로부터 각각 "신의 영감을 받은 소프라노" "최상급의 기교"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내한 경력은 없지만 메이저 레이블을 통해 국내에 잘 알려졌으며 1980년대 프랑스 태생의 사비느 드비에일, 마리안느 크레바사 등과 함께 프랑스 및 유럽 오페라의 차세대 성악가들로 주목 받고 있다.

– 해설지(17쪽 분량, 불 · 영 · 독문)에는 로시니의 작품세계, 줄거리, 출연진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800408 [6DVDs]
C Major 800504 [4BDs]

[핫, 추천영상]

어른이 보아도 재밌고, 아이들에겐 유익하다.
초심자에겐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최고의 해설가이자 지휘자인 번스타인을 우리 집으로!

1958~72 실황
– 번스타인의 '젊은이들의 콘서트' 2집 (17편 수록)

번스타인(지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젊은 연주자' 편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제임스 버스웰(바이올린) 등 출연

연주에 매료되고, 명해설에 반하다!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뉴욕 필은 해설이 있는 젊은이들의 음악회를 진행했고 CBS를 통해 52편의 프로그램이 제작 · 방영되었다. 이 영상물은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18년 발매된 1집(Cmajor 800304)의 뒤를 잇는 2집으로 1960~1970년 17편의 영상(흑백)이 수록되어 있다. '젊은이들의콘서트'이지만, 번스타인의 해설과 유명 작품 연주를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기에 초심자에게도 좋은 교재로 추천한다. 특히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코플랜드 등 그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테마를 통해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도 접할 수 있다. 해설지(25쪽 분량/영 · 독 · 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보조자료]

– 1958년부터 1972년까지, 번스타인(1918~1990)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여러 협연자들과 함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진행했다. CBS를 통해 제작 · 방영된 52편의 프로그램은 번스타인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지휘자'(뉴욕 타임스)로 만들고 명성을 알리는 데에 일조했다. 한국에도 소개되어 방영되었을 정도니, TV 역사에서 이토록 예술과 미디어가 절묘하게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는 또 없을 것이다.

– 이 시리즈 중 첫 번째 영상물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던 2018년에 씨 메이저(C Major)에 의해 빛을 보았다. 이 영상물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영상물로 4장의 블루레이(BD)에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되었던 17편의 공연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흑백 영상이며, BD 1 · 2 · 3은 번스타인이 직접 해설과 지휘를 맡고, BD4는 청소년들이 협연자로 등장하며 번스타인을 비롯하여 여러 지휘자들과 자신의 실력을 자랑한다. 젊은 날,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만날 수 있다.

– '젊은이들의 콘서트'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명 작품을 통해 음악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클래식 초심자에게도 제 격이다. 특히 소나타 형식, 선법 등의 음악이론은 물론 쇼스타코비치, 시벨리우스, 코플랜드 등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통해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본 영상물만의 특징이다.

–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일어)에는 번스타인의 해설과 연주가 소제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해설과 정보를 선택하며 보아도 좋다. 앞서

발매된 1집이 전부 흑백 필름인 것과 달리 2집은 중간마다 컬러필름이 들어가 있어 감회가 색다르게 다가온다.

[내용소개]

[BD 1]

(1) 소나타 형식이란 무엇인가:
1964년 영상(흑백).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 비제 '카르멘' 중 미카엘라의 아리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545,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고전' 4악장. 번스타인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해설한다.

(2) 시벨리우스를 기리며:
1965년 영상(흑백). 핀란디아,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2번 등 시벨리우스(1865~1957)의 대표작을 통해 핀란드와 작곡가의 예술관을 만날 수 있다.이 영상은 제목처럼 탄생 100주년인 시벨리우스를 기리는 한편의 콘서트이기도 하다.

(3) 음악적 요소(간격에 대한 탐구):
1965년 영상(흑백). 요한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레논/메카트닉 'Help', 브람스 교향곡 4번, 본 윌리엄스 교향곡 4번 등을 감상하며 교향곡 등의 음악을 만드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4) 오케스트라의 소리:
1965년 영상(흑백). 하이든 교향곡 88번, 베토벤 교향곡 1번 · 5번 · 7번, 드뷔시 '이베리아', 브람스 교향곡 1번,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 거쉰 '파리의 미국인', 바흐 바이올린 무반주 파르티타 등을 감상하며 오케스트라가 지닌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살펴본다.

[BD 2]

(5) 쇼스타코비치의 탄생을 기리며:
1966년 영상(흑백). 쇼스타코비치(1906~1975) 탄생 60주년을 맞아 교향곡 7번 · 9번에 집중하여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세계관을 설명한다.

(6) 선법이란 무엇인가:
1966년 영상(흑백). 작품의 분위기와 흐름을 결정하는 특징적인 선율적 행태와 관련된 음계의 한 유형을 뜻하는 '선법'에 대해 번스타인이 다양한 음악들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드뷔시, 리스트, 림스키-코르사코프, 브람스, 프로코피예프, 시벨리우스, 쇼팽, 무소륵스키 등의 작품을 통해 도리안 · 프리기안 · 리디아 선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7) 비엔나의 3/4박자:
1967년 영상(컬러). 요한 슈트라우스 '빈의 기질', 모차르트 '독일 댄스', 교향곡 41번, 베토벤 교향곡 7번, 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왈츠 등을 통해 여러 음악에 숨쉬고 있는 왈츠 박자를 설명한다. 왈츠만큼의 그의 해설과 지휘는 흥겹다.

(8) 퀴즈 콘서트:
1968년 영상(컬러). 번스타인이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음악을 예로 들며 애버리피셔홀과 시청자들에게 직접 문제를 내는 흥미로운 시간이다.

(9) 베를리오즈와 여행:
1969년 영상(컬러).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각 대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베를리오즈의 작품 세계를 쉽고 재밌게 이해하게 한다.

[BD 3]

(10) 두 마리의 발레 새들:
1969년 영상(컬러).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와 스트라빈스키 '불새'를 연주하고 비교하며 러시아 고전발레와 현대발레에 사용된 음악을 두루 살펴본다.

(11) 피델리오(삶의 기념):
1970년 영상(컬러). 안티아 다리안(레오노라), 포레스트 워렌(플로레스탄), 하워드 로즈(로코), 다비드 컴버랜드(돈 피차로)가 함께 하는 무대로 베토벤 '피델리오'에 담긴 이야기와 명장면들을 살펴보며 베토벤의 작품세계와 '피델리오'를 이해해나간다.

(12) 오늘, 과거와 미래에 흔치 않은 악기들:
1960년 영상(흑백). 빌라-로보스 작품 속의 타악기, 가브리엘리의 작품에 담긴 과거와 새로운 관악기들, 바흐를 통해 만나보는 18세기 악기들, 테이레코더라는 신종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등 과거부터 현대까지 여러 효과를 위해 태어난 악기들과 그것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속 중요한 대목을 들어본다.

(13) 서곡과 전주곡:
1961년 영상(흑백). 로시니 '세미라미데' 서곡,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전주곡,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을 통해 서곡과 전주곡의 묘미를 접할 수 있다.

(14) 아론 코플랜드 생일 파티:
1961년 영상(흑백). 코플랜드(1900~1990)의 60세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로 아웃도어 서곡, 극음악 2번 등을 통해 미국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탐구한다. 코플랜드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BD 4]

(15) 젊은 연주자들(Ⅳ):
1963년 영상(흑백). 2018년에 발매된 1집의 마지막(BD4)에 이어지는 시리즈로 뉴욕필의 명물이 된 청소년음악회로 소년소녀 협연자들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각 악장별로 협연자를 달리하고,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앙드레 와츠)을 선보이기도 한다.

(16) 젊은 연주자들(Ⅴ):
1963년 영상(흑백). 헨델, 라벨, 바르톡, 로시니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라벨의 하프 · 플루트 · 클라리넷 ·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는 젊은 날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를 맡아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17) 젊은 연주자들(Ⅵ):
1965년 영상(흑백).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제임스 버스웰) 등 천재 협연자들의 무대를 비롯하여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등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831 [2DVDs]
Dynamic 57831 [Blu-ray]

2018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 헨델 '리날도'(1718 나폴리버전) *최초레코딩

파비오 루이지(지휘 · 하프시코드), 조르지오 상가티(연출), 테레사 이에르볼리노(리날도), 카르멜라 레미지오(아르미다),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즈-루에다(고프레도), 로리아나 카스텔라노(알미레나) 등

헨델도 몰랐던 '리날도'의 또 다른 판본

1711년에 세상에 나온 〈리날도〉의 또 다른 판본인 나폴리버전(1718)이 2012년 영국 의 어느 성에 발견되면서 두 버전이 존재하게 됐다. 나폴리버전은 어느 가수가 나폴리에 불법으로 가져온 것을 레오(1694~1744)가 나폴리인들의 취향에 맞춰 재구성한 것. 간주곡과 흥미로운 캐릭터가 더 추가됐다. 영상물은 나폴리버전 400주년이 되던 2018년, 제44회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실황물로 나폴리버전을 세상에 알린 첫 레코딩이다. 리날도는 프레디 머큐리로 분장하고 나온다. 연출가 조르지오 상가티(1981~)가 독일어 'Barock'를 'Ba-rokc'로 재해석하여 기독교인과 터키인의 투쟁을 대중가수와 터키인의 대립으로 그린 것이다. 오케스트라 라 신틸라의 바로크 미학을 구현하는 정격연주도 인상적이다. 216분 분량. 해설지(20쪽/이탈리아 · 영어)에 런던/나폴리버전의 비교 도표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헨델(1685~1759)은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페라를 작곡하고 감독하는 데 바쳤다. 〈리날도〉(1711)는 그가 최초로 런던을 위해 작곡한 이탈리아 오페라다. 화려한 음악과 정교한 무대 효과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리아 악보는 헨델에게 부수입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 많은 이들이 〈리날도〉의 악보가 1711년에 작곡된 것만 있는 줄 안다. 그런데 2012년, 1718년에 나폴리에서 재구성된 또 다른 버전이 영국의 어느 성에 발견되면서 〈리날도〉는 런던 버전(1711)과 나폴리 버전(1718)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나폴리 버전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더 많다. 나폴리 버전은 '리날도'에 출연했던 카스트라토 니콜로 그리말디가 악보를 나폴리에 불법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작곡가 레오나르도 레오(1694~1744)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이 판본은 런던 버전과 달리 나폴리 대중의 취향에 맞췄고 중간에 간주곡과 흥미로운 캐릭터가 더 추가되었다.

– 이 영상물은 나폴리 버전이 태어난 지 400년이 되던 2018년, 제44회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에 오른 나폴리 버전이다. 나폴리 버전의 첫 영상 레코딩이라는 점에서 소장의 가치도 높다. 작곡자명을 'Handel-Leo'로 표기한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나폴리 버전을 재구성한 레오나르도 레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 음악학자 지오반니 안드레아 세치가 힘을 보태 재구성했다. 바로크 미학에 충실하면서도 당대의 다른 음악들도 부분적으로 가미하여 작품의 응집력을 높인 것이다.

– 젊은 연출가 조르지오 상가티(1981~)는 재미난 묘수를 낸다. 바로크를 지칭하는 독일어 'Barock'를 'Ba-rokc'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 속 기독교인과 터키인 사이의 투쟁은 대중가수(그리스도인)와 검은 사람들(투르크인)의 투쟁으로 설정하여 가져간다. 리날도(테레사 이에르볼리노)는 프레디 머큐리를 연상시키는 분장을 하고 나온다.

– 영상물의 또 다른 매력은 오케스트라 라 신틸라의 바로크 미학을 구현하는 정격연주다. 하프시코드와 지휘를 맡은 파비오 루이지는 나폴리의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사운드를 구사한다.

– 총 길이 216분이며, 해설지(20쪽/이탈리아 · 영어)에는 런던과 나폴리 판본을 비교한 도표가 상세히 담겨 있다.

Dynamic 37832 [2DVDs]
Dynamic 57832 [Blu-ray]

2018 페스티벌 실황 세계 최초 레코딩 – 니콜라 바카이 오페라 '줄리에타와 로메오'

세스토 쿼트리니(지휘), 라스칼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세실리아 리고리오(연출), 레오노르 보닐라(줄리에타), 라파엘라 루피나치(로메오), 레오나르도 코르텔라치(카펠리오)

보닐라!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슬펐던 줄리에타는 없었다

이탈리아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은 1975년 시작 이래 매해 7 · 8월마다 희귀작을 발굴하여 선보이는 축제로 유명하다. 이 영상물은 니콜라 바카이(1790~1848)의 '줄리에타와 로메오' 실황(2018.7.15.~31)이다. 16세기 전통을 펼쳐낸 연출, 주옥 같은 아리아(특히 35트랙 '아, 줄리에타... 죽어가면서)들의 발견, '세계 최초 레코딩'이라는 기록 등 여러 매력점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소프라노 레오노르 보닐라(줄리에트)의 존재감과 열연이다. 세비야 출신의 그녀는 스페인 전통무용은 물론 빼어난 외모와 드라마틱한 표정연기까지 무엇하나 빠지지 않고, 보는 이를 푹 빠져들게 한다. 해설지(16쪽/이탈리아 · 영어)에 작품 설명이, 보너스영상에 여성연출가 리고리오의 인터뷰(9분)가 수록되었다.

[보조자료]

– 1975년에 설립된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은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의 마르티나 프란카에서 매년 7 · 8월에 열리는 오페라 페스티벌이다. 국내에는 낯설지만 그 지방의 명승인 두칼레 궁전의 야외 안뜰에 특별히 무대를 제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혹은 개정본이 아닌 '원본(초판)'을 공연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에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페스티벌이다.

– 이 영상물은 제44회 페스티벌에 오른 니콜라 바카이의 오페라 '줄리에타와 로메오' 실황물(2018년 7월 15~31일)이다. 바카이는 생전 약 15편의 오페라를 남겼는데, 1825년 작 '줄리에타와 로메오'는 같은 해에 발표한 '쟈딕과 아스타르테아'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 메조소프라노 라파엘라 루피나치가 일명 '바지 역할'로 로메오역을 맡았고, 소프라노 레오노르 보닐라가 줄리에트역을 맡았다. 세비야 출신의 보닐라는 처음에 스페인 전통무용을 익혔으며, 2010년부터 전문적 성악 교육을 받은 후 2015년부터 여러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영화배우를 능가하는 외모와 드라마틱한 표정연기, 빈틈 없는 노래로 관객을 사로 잡는다.

– 작품에 숨어 있는 주옥 같은 아리아들도 만날 수 있다. 죽은 줄리에타를 끌어안고 노래하는 카펠리오(캐퓰러)역의 레오나르토 코르텔라치의 아리아 '아, 줄리에타....죽어가면서'(35트랙)는 짧으면서도 강한 서정성을 선사한다.

–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사와 바카이 특유의 음악성에 비해 이 작품은 실연으로 만나기가 힘들다.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은 희귀 작품을 발굴하여 '세계 최초 레코딩'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영상물(작품)에도 이 딱지가 붙었다.

– 제목 상 셰익스피어가 떠오르겠지만, 대본가 펠리체 로마니는 '줄리에타와 로메오'에 대한 소스를 셰익스피어가 아닌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 마테오 반델로(1480~1562)의 소설 '로메우스와 줄리에타'를 참고로 했다.

– 해설지(16쪽 분량, 이탈리아 · 영어)에는 트랙, 작품소개, 공연 사진이 수록, 보너스 영상에는 16세기 전통을 잘 살려 이 작품을 연출한 여성연출가 세실리아 리고리오 인터뷰(9분)가 담겨 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57488 [DVD]

모리스 베자르 미발표 영상 – 볼레로 & 봄의 제전

모리스 베자르(안무), 듀스카 시프니오스 · 마이야 플리세츠카야(볼레로) 외

볼레로 속 베자르의 '여신'들을 만나다

2019년에 나온 이 영상물은 모리스 베자르(1927~2007)의 대표작 '봄의 제전(1959)'과 '볼레로(1960)'이 수록되어 있다. 미발표 영상물로 각 작품들이 1960~70년대의 흑백과 컬러 영상으로 비교하며 볼 수 있도록 복원되었다. 대형원탁 위에 한 명의 발레리나가 관능적인 춤을 추는 안무로 유명한 '볼레로'의 1962년 필름(흑백)에는 듀스카 시프니오스(1933~2016)가, 1977년 필름(컬러)에는 마이야 플리세츠카야(1925~2015)가 출연한다. 베자르는 세르비아 출신의 시프니오스를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 '봄의 제전'도 흑백(1960)과 컬러(1971)로 되어 있다. 하나의 작품을 흑백과 컬러로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영상에 대한 감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카메라 워킹도 각기 다르다.

[보조자료]

– '클래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영상물은 발매되지 않았던 베자르의 1960~70년대에 초연하고 촬영한 '봄의 제전'과 '볼레로'를 디지털화하여 복원한 것이다.

– 프랑스 출신 모리스 베자르(1927~2007)는 20세기 발레의 혁명가였다. 청소년기에 연극과 오페라에 빠졌다가 무용을 접한 뒤 발레로 방향을 틀었다. 18세에 마르세유 발레단에 입단했고 스웨덴 왕립발레단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고전 발레와 결별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1987년 자신을 세계적인 무용가로 키워 준 벨기에를 떠나 스위스 로잔에 정착하고 발레단 이름도 '20세기 발레단'에서 '베자르 발레 로잔으로 고쳤다.

– 생전에 남긴 250여 편의 안무작 중 50여 편이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중 1959년 작 '봄의 제전'과 1960년 작 '볼레로'는 대표작이다.

– '봄의 제전'은 봄에 분출하는 생명의 거대한 에너지 자체를 강렬한 동작으로 살린 작품이다. 전반부는 남성 무용수, 후반부는 여성 무용수 군무가 등장해 움직임의 대비를 나타내는 한편, 마지막에는 이들이 섞이고 한 커플의 무용수가 위로 들어올려지며 마무리된다.

– '볼레로'는 단순하게 시작한 음악이 갈수록 강렬해지는 특유의 비트와 리듬이 베자르의 힘과 관능미를 앞세운 무용수들의 동작과 혼연일체 되어 놀라운 시청각적 흥분을 가져다준다. 이 작품은 대형원탁 위에 한 명의 발레리나가 관능적인 춤을 추는 안무로 유명하다. 베자르는 '볼레로'를 듀스카 시프니오스(1933~2016)를 위해 만들었다. 세르비아 출신의 그녀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발레리나다. 이후 마이야 플리세츠카야(1925~2015) 등이 그 자리를 이어나갔다. 이 영상의 큰 특징이라면 두 여성무용수를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 영상물은 4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다. 포함된 낱장의 해설지에는 출연진, 간단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①볼레로: 1962년 흑백필름. 듀스카 시프니오스
②볼레로: 1977년 컬러필름. 마이야 플리세츠카야
③봄의 제전: 1960년 흑백필름. 이고르 마르케비치(지휘)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④봄의 제전: 1971년 컬러필름. 앙드레 반데르누트(지휘) ·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각각 흑백과 컬러로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영상에 대한 감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카메라 워킹도 다르다.

EuroArts 2087968 [13DVDs]

'선동가와 철학자' 뇌섹남, 독설남, 완벽남 첼리비다케(1912~96)의 모든 것 [1950~1994년 영상 모음 – 세르주 첼리비다케 13DVD 박스물]

첼리비다케(지휘), 뮌헨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토리노 방송교향악단, 다니엘 바렌보임(피아노), 얀 슈미트–가레(영상)

1950~1994년 영상 모음–세르주 첼리비다케의 모든것

그동안 유로아츠, 아트하우스, 오푸스아르떼 등에서 발매된 세르주 첼리비다케(1912~1996)를 13장의 DVD에 모은 스페셜 박스물이다. 브루크너 4번 · 5번 · 7번 · 9번,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드보르자크 '신세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 2번과 슈만 ·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외 라벨, 드뷔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젊은 시절 그의 리허설은 완벽한 음악을 위한 강행군이었다. 독설과 단원들에 대한 무시는 기본이었다. 노년의 그는 부드러워졌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멈추고, 반복하기를 '반복'한다. 수다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음악의 정교함으로 드러난다. 그의 삶에 관한 영상다큐멘터리와 여러 편의 리허설 실황에 잘 담겨 있다. 단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떠났던 베를린 필과 38년 만의 재회한 그의 브루크너 교향곡 7번(1992년)과 리허설 필름은 귀한 자료다. 해설지(34쪽 · 영문)에는 영상물 스펙이, 224쪽 분량의 하드케이스 책자(영 · 독 · 일어)에는 그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세르주 첼리비다케(1912~1996)는 지금으로 따지면 '뇌섹남'이자 '독설남' 그리고 '완벽남'이었다. 베를린 예술대에서 철학, 수학, 작곡, 지휘를 공부했다. 그의 리허설은 가혹했다. 악단과 단원을 멸시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소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리허설을 이끌어 갔다. 모두 암보로 지휘했다.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 대우(1945~52)를 받았던 그는 젊은 날부터 이러한 자세를 고수했다. 베를린 방송교향악단(1945~46), 스웨덴 방송교향악단(1965~71),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1971~79), 뮌헨 필하모닉(1979~96)에서도 자세는 변치 않았다.

– 20세기가 지날수록 녹음 기술은 완벽해져 갔지만 그는 녹음을 기피했다. 그 기술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1996년 첼리비다케의 사후 유족들은 비정규 해적음반이 범람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미발표 리사이틀 기록을 EMI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공식 CD로 발매하도록 했다.

– 그동안 유로아츠, 아트하우스, 오푸스아르떼, 이데알레 오디언스 레이블 등에서 발매된 영상물을 한데 모은 박스물은 13장의 DVD(종이케이스)로 구성되었다. 해설지(34쪽 · 영문)에는 영상물 스펙이 담겨 있다. 224쪽 분량의 하드케이스 책자(영 · 독 · 일어)는 첼리비다케의 인터뷰다. 생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에 담았던 얀 슈미트–가레 감독의 첼리비다케론도 들어 있다.

– 이 박스물의 묘미는 그의 리허설 현장이다. 독설남은 말도 많다. 만년의 육중한 체력과 달리 그의 입과 언어는 선율 사이에 계속 박힌다. 그 말들이 단원들을 일깨우고 음악에 완벽을 더한다. 13장의 DVD 중 한국어 자막은 영상 '선동가와 철학가'(1DVD)에만 되어 있다. 하지만 리허설의 노장은 몸과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에 자막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첼리비다케의 팬이라면, 브루크너의 팬이라면 영상 관람 후 '광팬'이 될 것이다.

[1DVD] 한글자막
2011년 제작한 영상 '선동가와 철학자'는 첼리비다케의 일생과 그에 관한 증언을 담고 있다. 리허설, 지휘대, 마스터클래스 등의 첼리비다케의 모습이 컬러와 흑백으로 교차된다. 제작을 위해 베를린 필하모닉 아카이브부터 유럽 내 여러 방송필름이 동원되었다. 다니엘 바렌보임, 이리나 파라스치바, 미쉘 볼하우스의 인터뷰가 고인의 삶과 예술관을 이야기해준다.(52분 · 컬러, 독 · 영어 음성지원, 불 · 일어 · 스페인 · 이탈리아 · 한국어 자막 제공). 보너스필름으로 ①바렌보임(5분), 파라스치바(10분), 볼하우스(6분)의 집중적인 인터뷰(독 · 영 · 불어 자막), ② 베를린 필하모닉 아카이브의 1950년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 실황(흑백)이 수록. 아트하우스.

[2DVD]
얀 슈미트-가레가 1992년 제작 · 촬영한 영상물 'You Don't Do Anything-You Let It Evolve'(진화시키고자 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는 강의실, 지휘대, 마스터클래스, 공연 직전 리허설, 공연의 첼리비다케를 담고 있다(100분 · 컬러, 영 · 독 · 불 · 일 · 이탈리아 · 스페인어 자막). 아트하우스.

[3DVD]
브루크너 교향곡 9번 토리노 방송교향악단(Orchestra Sinfonica di Torino della RAI) 1969년 토리노 콘서트홀(Auditorium di Torino) 실황(흑백 · 71분). 오푸스아르떼.

[4DVD]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리허설 영상(33분 · 흑백/영 · 독 · 불 · 스페인어 자막)과 1965년 공연실황(16분 · 흑백),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1982년 촬영물(50분 · 컬러, 독주 바이올린 한스 칼라프츠) 수록.

[5DVD]
뮌헨 필과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뮌헨 헤라클레스홀 1983년 실황(81분 · 컬러). 인터뷰(31분 · 컬러 · 불어 진행/불 · 영 · 독어 자막). 아트하우스.

[6DVD]
뮌헨 필하모닉의 1985년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5번(89분) 수록. 아트하우스.

[7DVD]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1991년 실황(54분),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고전적' 리허설(40분, 영 · 불 · 독어 자막)과 리허설 직후 중단 없이 하는 연주(28분) 영상 수록. 유로아츠.

[8DVD]
뮌헨 필과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리허설 현장 영상물(57분/영 · 불 · 스페인어 · 이탈리아 · 일본어 자막). 생전 첼리비다케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에 담은 얀 슈미트-가레 감독이 촬영 · 편집했다. 아트하우스.

[9DVD]
다니엘 바렌보임이 뮌헨 필하모닉과 협연하는 슈만 협주곡(1991년 독일 에를랑겐 슈타트할레 실황)과 차이콥스키 협주곡(1991년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 수록. 유로아츠.

[10DVD]
다니엘 바렌보임이 뮌헨 필하모닉과 협연하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1991년 독일 에를랑겐 슈타트할레 실황)과 피아노 협주곡 2번(1991년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 수록. 유로아츠.

[11DVD]
1954년 푸르트벵글러가 세상을 떠난 후 첼리비다케가 베를린필 음악감독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당시 37세의 카라얀이 사령탑을 맡았다. 33세의 젊은 나이로 베를린 필을 지휘할 만큼 역량이 뛰어났던 첼리비다케는 완벽함을 집요하게 추구, 단원들과 갈등을 겪다 상임지휘자 자리가 카라얀에게 넘어가자 베를린 필을 떠나 38년간 인연을 끊고 지냈다. 그러다 1992년 독일 바이츠커 대통령의 간곡한 초청제의를 받아들여 베를린 필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 귀향의 노래는 브루크너 교향곡 7번(90분). 다큐멘터리 '당당한 귀환'(54분)은 영광스런 무대를 준비하는 리허설, 과거 베를린 필 단원들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첼리비다케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영 · 독 · 일어 자막). 유로아츠.

[12DVD]
브루크너는 소년 시절부터 40세까지 성 플로리안 성당에 봉직했다. 영상 '성 플로리안 성당의 첼리비다케'에 뮌헨 필과의 브루크너 F단조 미사 리허설과 공연 실황을 얀 슈미트-가레가 담았다. '키리에'는 리허설, '아뉴스 데이'는 실황 식으로 여러 상황을 하나의 영상에 편집되었다(영 · 불 · 일 · 스페인어 자막). 짧은 영상인 '1988년 모스크바의 첼리비다케와 뮌헨 필하모닉'(4분 30초)이 보너스필름.

[13DVD]
뮌헨 필하모닉의 1994년 쾰른 필하모니아 실황.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라벨 '스페인 광시곡', 드뷔시 '이베리아', 라벨 '볼레로' 수록. 이데알레 오디언스.

EuroArts 2059734 **[4BDs]**

사이먼 래틀 박스 에디션 :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의 블루레이 확장판 컬렉션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이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도 최고의 순간들을 담았다. 이 박스물에는 아름다운 숲 속에서 랩소디를 주제로 한여름의 밤을 수놓은 2007년 발트뷔네 콘서트, 러시아 리듬을 주제로 했던 2009년의 발트뷔네 콘서트, 매년 5월 1일 베를린필하모닉의 창립 기념일에 유럽 곳곳의 문화유산에서 펼쳐지는 유로파 콘체르트 중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19세기 베를린의 산업활동을 대표하는 인상적인 건축물인 Kabelwerk Oberspree 케이블 공장에서 펼쳐진 2007년 유로파 콘체르트,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열린 2008 유로파 콘체르트가 담겨있다. 2018년 6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베를린필하모닉과 함께하며 오케스트라를 대표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안착시킨 사이먼 래틀에 대한 감사패이다.

Blu-ray Disc 1
2007년 발트뷔네 콘서트 – 아름다운 숲 속에서 랩소디를 주제로 한여름의 밤을 수놓은 콘서트

Blu-ray Disc 2
2009년의 발트뷔네 콘서트 – 러시아 리듬을 주제로 했던 콘서트

Blu-ray Disc 3
2007년 유로파 콘체르트 –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19세기 베를린의 산업활동을 대표하는 인상적인 건축물인 Kabelwerk Oberspree 케이블 공장에서 펼쳐진 콘서트

Blu-ray Disc 4
2008 유로파 콘체르트 – 2018년 6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베를린필하모닉과 함께하며 오케스트라를 대표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안착시킨 사이먼 래틀에 대한 감사패이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595 [DVD]
Naxos NBD0091V [Blu-ray]

2014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실황
– 샤브리에 오페라 '별'

패트릭 포닐니에르(지휘), 헤이그 레지덴티에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합창단, 스테파니 두스트락(라줄리), 크리스토프 모르타뉴(우프왕), 엘렌 뒬메트(라울라 공주), 로렌트 펠리(연출)

뮤지컬보다 더 재밌는 오페라!

2014년 10월 13 · 16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물로 에마뉘엘 샤브리에(1841~1894)의 1877년 작 코믹 오페라다. 이 작품은 아리아 '오 작은 별'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 직접 오른 적은 없다. 가난한 행상 라줄리, 내막도 모른 채 이웃나라 우프왕과 결혼하기 위해 온 라울라 공주,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다가 결국 이들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우프왕이 등장한다. 연출가 로렌트 펠리는 현대사회와 과거 궁정의 귀족 문화를 혼합하여 무대를 구성한다. 라줄리 역은 일명 '바지역할'로 메조소프라노가 맡은 남성 역이다. 오늘날 바지역할로 오페라계를 강타하고 있는 스테파니 두스트락의 활약이 이 작품을 뮤지컬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나간다.

[보조자료]

– 2014년 10월 13 · 16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물로 에마뉘엘 샤브리에(1841~1894)가 작곡한 프랑스어 오페라다. 1875년 샤브리에는 피아노 소품인 '오, 작은 별'을 토대로 오페라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1877년 작 '별(L'étoile)'은 주인공 라즐리의 아리아 '오 작은 별'을 여성 성악가들이 여러 무대에서 즐겨 부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리아들과 줄거리는 뮤지컬처럼 대중적인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국내에 초연된 적이 없다.

– 연출가 로렌트 펠리는 현대사회와 과거 궁정의 귀족 문화를 혼합하여 무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모던 턱시도를 입은 귀족이 헨델의 파마머리를 연상시키는 과한 가발을 착용하고 나오는 식이다.

– 주인공은 라즐리다. 일명 '바지역할'로 메조소프라노가 남성 역을 맡는다. 프랑스의 메조소프라노 스테파니 두스트락은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의 옥타비오 등의 바지역할로 명성이 자자한 성악가이다. 남장한 그녀는 가난하지만 쾌활한 라즐리역으로 무대를 뮤지컬처럼 만들어나간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 줄거리를 알아두면 감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줄거리]** 우프왕(크리스토프 모르타뉴/테너)은 생일마다 백성들 중 왕실에 불만을 품은 자를 잡아 처형하는 이상한 취미가 있다. 이때 이웃나라의 헤리송 대사(엘리엇 마도어/바리톤)가 부인 알로에(줄리 블리안느/메조소프라노), 비서 타피오카(프란시스 피올리노/테너), 라울라 공주(엘렌 뒬멧/소프라노)와 거리에 나타난다. 사실 헤리송 대사는 딸 라울라를 우프왕과 결혼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던 라울라는 가난한 행상 라줄리(스테파니 두스트락/메조소프라노)와 사랑에 빠지고, 우프왕도 그 장소를 지나다 라울라에게 반한다. 하지만 라줄리는 우프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들고, 우프 왕은 라줄리를 처형하기로 마음먹는다.

– 하지만 점성술사는 라줄 리가 귀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자, 우프왕은 그를 왕궁으로 데려간다. 호화로운 생활이지만 라줄리는 라울라를 그리워한다. 우프왕은 라울라와 라줄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사랑을 돕고 그들은 도주를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리송은 라줄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프왕도 공주가 자신과 결혼하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다들 이러고 있을 때에 라줄리는 라울라 공주에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단단해져 있다. 우프왕은 조금만 있으면 점성술사의 예언에 따라 라줄리가 죽을 것으로 알고 기다리지만 점성술사의 예언은 잘못 되었다. 우프왕은 마음을 고쳐먹고 차라리 라줄리와 라울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낫다며 작품은 막을 내린다.

Naxos 2.110393 [DVD]

2014 케네디센터 실황
– 라모 '결혼과 사랑의 축제'

리안 브라운(지휘), 오페라 라파예트, 뉴욕 바로크댄스 컴퍼니 · 칼란니디 댄스 · 더 신 쿠란 컴퍼니(무용), 캐서린 투록시 · 아누라다 네루 · 신 쿠란(안무), 크레이 데보노(오르케시에), 제프리 톰슨(오시리스) 외

라모 서거 250주년을 빛낸 숨은 명작

국내에 '결혼과 사랑의 축제' '결혼의 신과 사랑의 신 축제' 등으로 번역되는 라모(장 필리프 라모(1683~1764)의 오페라로, 그의 서거 250주년인 201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 실황물이다. 미국 유일의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오페라 라파예트가 연주를 맡았고, 정식 오페라가 아니라 콘서트버전이지만 의상 · 춤 · 연출 · 조명을 두루 갖춘 공연이다. 라모는 1747년 초연된 이 작품을 통해 동양과 이국풍 문화에 눈떴으며, 무용이 발전했던 시기의 오페라답게 중간마다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뉴욕 바로크 댄스 컴퍼니의 궁중발레는 물론 인도 전통춤을 구현하는 칼란니디 댄스, 더 신 쿠란 컴퍼니가 함께 하여 동양적인 이국풍의 향연을 선보인다. 해설지(19쪽 분량/영어)에는 트랙, 출연진, 라모에 관한 해설, 캐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장 필리프 라모(1683~1764)의 오페라 'Les Fêtes de l' Hymen et de l' Amour'은 국내에 '결혼과 사랑의 축제' 혹은 내용의 의미를 살펴 '결혼의 신과 사랑의 신 축제'로 번역되곤 한다.

– 이 작품은 1747년에 열린 루이 15세 왕세자와 마리 조제프 드 삭스의 결혼식에서 초연된 후 거의 사장되었다가, 2014년 라모 서거 250주년을 기념으로 하여 267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라모 특유의 다채로운 오케스트라와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독특한 성악 작법, 감각적인 화성 감각이 깊은 인상을 준다.

– 영상물은 서거 250주년이던 201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 실황이다. 연주는 리안 브라운이 이끄는 오페라 라파예트가 맡았다. 이 단체는 워싱턴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 유일의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이다. 공연장이 오페라극장이 아닌 콘서트 실황이지만, 무대 정중앙에 위치한 오케스트라 앞으로 한 편의 오페라가 펼쳐지고, 합창석에는 호흡을 맞추는 합창단이 함께 하는 형식으로 작품의 원전에 다가가려 노력했다.

– 이 작품은 이집트 신화와 동양의 세계에 대한 라모의 첫 번째 탐험이었다. 그래서 당시 라모(1683~1764)가 살았던 당시 유럽을 매료한 동양적이고 이국풍의 문화가 곳곳에 녹아 있으며, 라모의 대본은 마술, 신, 초자연적 존재를 등장시킨다. 3막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용이 발전했던 시기의 오페라답게 중간마다 화려한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를 위해 뉴욕 바로크 댄스 컴퍼니는 물론 인도 전통춤을 구현하는 칼란니디 댄스, 더 신 쿠란 컴퍼니가 함께 하여 동양적이고 이색적인 춤의 향연을 선보인다.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 영상물이 오페라지만 표지에 안무가와 무용단의 이름이 박혀 있는 이유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한마디로 라모 풍의 바로크 선율과 성악, 화려한 궁중 무희와 동양적 춤이 한 자리에서 조우하는 콘서트 오페라 무대이다. 엄밀한 고증보다는 당대의 감수성과 사료들을 통해 오늘날의 감수성에 맞게 상상력의 옷을 입혔다.

– 해설지(19쪽 분량/영어)에는 트랙, 출연진, 라모에 관한 해설, 캐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Naxos 2.110597 [DVD]
Naxos NBD0092V [Blu-ray]

2017 라스칼라 실황
– 베버 '마탄의 사수'

정명훈(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줄리아 클라이테르(아가테), 마이클 쾨니히(막스), 귄터 그로이스브뤽(가스파르), 에바 리에바우(엔헨), 마티아스 하르트만(연출)

기다리고 기다린, 라스칼라의 정명훈!

2019년 4월에 전세계에 출시된 밀라노 라스칼라 2017년 10월 13 · 17일 실황으로 정명훈 지휘로 화제를 낳은 프로덕션이다. '마탄의 사수'는 약혼녀 아가테와의 결혼이 걸린 사격대회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에게 탄환(마탄)을 받아 목표물을 명중시키려던 막스의 이야기다. 하르트만(연출)은 집이나 방을 검정색 바탕에 흰색 선으로 계단, 탁자, 액자, 창문과 문인 것만 알아볼 정도로 간단히 그려내는 미니멀 기법을 사용하지만, 마탄을 만드는 2막의 배경은 숲과 어둠으로 점철하며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명훈은 기괴한 유령들과 초자연적인 공포까지도 음악적 요소들로 묘사하며 듣는 이를 오싹하게 만드는 악마적인 분위기를 한껏 불어넣는다. 중창에서도 깔끔한 지휘를 통해 성악진들의 개별적인 개성도 잘 드러나도록 했다.

[보조자료]

–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2017년 10월 13 · 17일 실황이다. 정명훈이 지휘를 맡아 국내 팬들이 많이 기다린 프로덕션 영상물로, 2019년 4월에 전세계에 출시되었다.

– 극장 밖에서 극장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카메라는 로비를 지난 관객석에 안고 이내 곧 오케스트라 피트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정명훈의 얼굴을 비춘다.

– 독일 낭만주의의 어둡고 신비로운 숲을 연상시키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19세기 초를 상징하는 오페라이다. 사격대회에서 우승하면 지역 산림감독관의 딸인 아가테와 결혼함과 동시에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아가테의 연인 막스는 참가하기로 결심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고민에 빠진다. 불안해진 막스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카스파르에게 악마의 탄환(마탄) 7개를 받아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그러나 7번째 탄환은 악마가 지목한 자를 쏴야 한다. 그것은 아가테에게 향하다가 카스파르를 향한다.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막스의 부정을 책망하지만 숲의 은자 나타나 이것을 중재하고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

– 연출가 마티아스 하르트만은 숲 속의 집이나, 아가테의 방을 세밀하게 재현하지 않고 검정색 바탕에 흰 색 선으로 계단, 탁자, 액자, 창문과 문인 것만 알아볼 정도로 간단히 그려낸다. 마탄을 만드는 2막의 배경은 숲과 어둠으로 점철된다.

– 이 작품은 곳곳에 대사로 처리된 대화, 민요풍의 멜로디 스타일, 대중적인 코러스 등을 고려해 볼 때 징슈필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 정명훈의 지휘는 당대의 관객들을 매혹했던 악마적인 분위기를 훌륭하게 되살리고 있다. 기괴한 유령들과 초자연적인 공포까지 음악적 요소들로 묘사하며 듣는 이를 오싹하게 만드는 악마적인 분위기를 한껏 불어넣었다. 중창에서도 깔끔한 지휘를 통해 성악진들의 개별적인 개성도 잘 드러나도록 했다.

– 해설지(19쪽 분량, 영문)에는 트랙, 작품 소개, 시놉시스, 캐스팅 내용이 담겨 있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21D [DVD]
OpusArte OABD7199 [Blu-ray]

OPUS ARTE

2018 로열오페라 실황
– 벤자민 · 크림프의 오페라 '사랑과 폭력의 수업'

조지 벤자민(작곡 · 지휘), 마틴 크림프(대본), 케이티 미셸(연출), 비키 모르티어(디자인),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스테판 드구(에드워드 2세), 바바라 허니건(이사벨), 귤라 오렌트(개버스턴)

현대식 오페라로 소화해낸 영국의 비극사

2018년 5월에 세계초연된 '사랑과 폭력의 수업'은 조지 벤자민(작곡) · 마틴 크림프(대본) · 케이티 미셸(연출) · 비키 모르티어(디자인)이 함께 참여한 2018년 최고의 화제물이다. 14세기 에드워드 2세와 그가 총애한 기사 피어스 개버스턴, 둘 사이 권력의 위계 질서를 걱정한 주변인들의 음모를 통해 개버스턴이 죽음을 맞는 내용이다. 무대는 현대식 방식과 의상을 입었으며, 카메라 워킹도 무대현장을 영화처럼 담아낸다. 현대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성악진인 스테판 드구(에드워드 2세) · 바바라 허니건(이사벨), 귤라 오렌트(개버스턴)이 작품의 매력도를 높인다. 97분 분량. 해설지(27쪽/영 · 불 · 독어)와 엑스트라 영상(5분)의 작곡가 · 작가 인터뷰가 작품의 중요 지점들을 짚어준다.

[보조자료]

– 조지 벤자민(1960~)이 작곡하고, 마틴 크림프(1956~)가 대본을 맡은 '사랑과 폭력의 수업'은 작곡가의 두 번째 장편오페라이다. 영상물은 이 작품이 세계초연된 2018년 5월 10일, 로열 오페라 하우스 실황물이다.

– 1307년부터 1327년까지 재위했던 에드워드 2세(1284~1307)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에드워드는 신분이 낮은 기사 피어스 개버스턴을 총애했고, 그는 신분에 어울리지 는 않는 많은 특혜를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우려했던 에드워드 1세는 개버스턴을 국외로 추방하지만, 에드워드 2세는 국왕으로 즉위 후 곧 피어스를 불러들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걱정한 이들은 에드워드 2세를 겨냥하였고, 이후 피한다. 하여 40여개의 칙령을 선포하였는데 그 중 20개는 따로 피어스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개버스턴은 1312년에 참수형을 당하였다.

– 14세기의 이야기지만, 무대는 오늘날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현대식 복장과 배경을 사용한다. 벤자민의 작곡기법은 현대오페라의 문법을 따르는 가운데, 현대음악과 새로운 음향, 여기에 더해지는 성악진의 인성 실험이 21세기 현대오페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 연출은 영국의 연극연출가 케이티 미셸이 맡았고, 영화 세트를 보는 듯한 비키 모르티어의 감각적인 무대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영상에 담긴 21세기 오페라는 오페라 기록물보다는 영화에 훨씬 가깝다. 카메라 워킹도 무대 위의 현장을 담았다기보다는 세트장처럼 활용하여 영화적 클로즈업 등 다양한 기법으로 세계 초연 현장을 담아낸다.

– 새로운 작품에 친숙함을 더하는 것은 현대음악에 능한 세계적인 성악진이다. 캐스팅만으로도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현대음악에 능한 바리톤 스테판 드구의 에드워드 2세 역은 물론, 현대음악계의 여왕인 바바라 허니건이 맡은 이사벨 역, 그리고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바리톤 귤라 오렌트의 활약이 돋보이며, 작품의 매력도를 높인다.

– 전체 97분 분량이며, 해설지(27쪽 분량/영 · 불 · 독어)의 수록된 작곡가와 대본작가의 인터뷰가 작품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설명해준다. 이 인터뷰는 동봉된 엑스트라 영상(5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OpusArte OA1285D [DVD]
OpusArte OABD7255 [Blu-ray]

2018 런던 로열발레 실황
– 케네스 맥밀란 & 마스네 '마농'

케네스 맥밀란(안무), 사라 램브(마농), 바딤 문타기로프(데그리외), 마스네(음악), 마르틴 예이츠(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춤도, 음악도 너무나 아름다워 영원히 기억될 무대

드라마발레의 명인 케네스 맥밀란(1929~92)이 1974년에 안무한 '마농'은 순수한 청년 데그리외와 세속적 욕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마농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음악은 마스네의 작품에서 발췌 · 편곡해 새롭게 구성했다. 본 영상물은 2018년 3 · 4월 실황으로 그리외의 사랑 고백(12트랙), 마스네의 '비가(Élégie)'가 흐르는 가운데 이를 받아들이는 마농(13트랙), 발레 갈라에서 인기 높은 '침실 파드되'(17트랙) 등을 수석무용수 램브(마농)와 문타기로프(그리외)의 환상적인 파드되로 채운다. 마틴 예이츠가 지휘도 일품이어서 '마스네 하이라이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①주역들의 작품소개 ②연습장면 ③케네스 맥밀란의 미망인 데보라 맥밀란 인터뷰가 보너스 영상. 해설지(19쪽 분량, 영 · 불 · 독어)에는 작품 소개,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92)은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존 크랑코(1927~1973)와 더불어 드라마 발레의 전성기를 연 대가로 평가된다.

– 케네스 맥밀란이 1974년에 안무한 발레 '마농'은 줄거리를 푸치니의 오페라에 가깝게 한 반면 음악은 마스네의 곡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스네의 오페라 열세 편, 오라토리오 두 편, 기악곡 · 가곡 · 피아노곡에서 발췌 · 편곡해 새로운 발레음악을 구성했다.

– 줄거리는 순수한 귀족 청년 데그리외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나 세속적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농을 사랑하지만, 마농은 그녀에게 배신당한 대귀족의 음모로 미국 루이지애나에 유배되고 끝까지 쫓아간 데그리외의 품에 안겨 늪지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비극이다.

– '마농'은 타이틀롤 마농과 그녀의 연인 데 그리외가 추는 아름다운 2인무가 곳곳에 배어 있는 작품이다. 본 영상물은 2018년 3 · 4월 실황으로 로열 발레의 수석무용수이자 간판스타인 사라 램브(마농)와 바딤 문타기로프(그리외)의 파드되는 환상적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치자마자 데 그리외가 사랑을 고백(12트랙)하고 마농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목에서 마스네의 유명한 '비가(Élégie)'가 흐른다(13트랙).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다. 발레 갈라에서 인기 높은 '침실 파드되'(17트랙)는 데 그리외의 하숙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두 사람의 춤이다.

– 특히 그리외의 솔로가 무척 여성적으로 안무되었다는 점이 맥밀런 작품의 특징 중 하나. 초연 당시 이 역할을 췄던 로열 발레의 앤서니 다월이 가장 섬세한 표현력을 지닌 최고의 당쇠르 노블(우아한 남성 댄서)이었던 탓이다. 문타기로프는 그 역사와 전통에 전혀 손색이 없는 우아함을 보여준다.

– 두 시간에 달하는 영상물의 또 다른 매력은 마틴 예이츠가 지휘하는 마스네의 음악들이다. 스테레오/DTS 서라운드 방식으로 음장감을 높여 공연 현장에서 직접 감상하는 듯하다.

– 보너스 영상에는 ①주역들이 소개하는 '마농'(5분), ②연습장면(4분), ③케네스 맥밀란의 미망인 데보라 맥밀란 인터뷰(4분)가 수록. 해설지(19쪽 분량, 영 · 불 · 독어)에는 작품 소개,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BD7254 [Blu-ray]

2017 리버풀 제국극장 실황
– 아크람 칸/ 영국국립발레단 '지젤'

영국국립발레단, 아크람 칸(안무), 타마라 로호(지젤), 제임스 스트리터(알브레히트), 제프리 시리오(힐라리온), 스티나 쿼아제부아(미르타), 가빈 서덜랜드(지휘), 영국발레 오케스트라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본, 산업노동자 지젤

문제적 안무가 아크람 칸(1974~)은 낭만발레 '지젤'을 오늘날 대두되는 난민의 문제로 재해석한다. 영상물은 2017년 10월, 28일 리버풀 제국극장 실황물(95분). 지젤은 의복 공장에서 일하던 중 작업장 폐쇄로 곤란을 겪고, 알브레히트는 재력을 숨기고 지젤과 만나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발각되고 지젤은 연적 바틸드 앞에서 혼절하고 만다. 칸은 2막 '윌리들의 숲'을 산업 재해 희생자들의 유령 공간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를 넘어 재회하는 두 연인의 줄거리는 원작과 대동소이하다. 빈첸초 라마냐가 아당의 음악에 전자음향을 섞어 소음과 쇳소리 등 공장의 기계음과 결을 맞추었다. 주요 출연진은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들. 타마라 로호(지젤)는 20여 년 동안 영국발레단에 몸을 담근 산증인이자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해설지(15쪽 분량 · 영문)에 원작 '지젤', 아크람 칸의 '지젤', 시놉시스가 수록.

[보조자료]

– 2017년 10월, 28일 리버풀 제국극장 실황으로 약 95분 분량의 영상물이다.

– 2015년 가을, 아크람 칸(1974~)이 '지젤'의 안무를 맡으면서 유럽 내에는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만 갔다. 결국 '칸의 지젤'의 초연 이후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2016 · 17년에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작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National'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로열 발레단에 비해 만년 2등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던 영국국립발레단도 이 작품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 아크람 칸이 클래식 발레단과 전막을 만든 것은 '지젤'이 처음이다. 칸은 낭만발레의 대명사인 작품의 배경을 동화 속이 아니라 오늘날의 산업 공장으로 설정했다. 무용과 육체 언어의 미학보다는 '난민의 시각'으로 지젤을 바라보며 사회학적 의식을 고찰시킨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사회와 담쌓고 궁정과 같은 비사회적 공간에서만 연행되던 발레와 그 언어로 공략했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예술의 장을 넘어 사회로 번져나갔다.

– 의복 공장에서 일하던 지젤(타마라 로호)이 작업장 폐쇄로 곤란함을 겪을 무렵, 알브레히트(제임스 스트리터)가 재력을 숨기고 지젤과 만나기 위해 위장 취업한다. 하지만 연적 힐라리온(제프리 시리오)에게 존재가 발각된다. 지주와 약혼녀 바틸드(베고냐 카오)의 출현에 당황한 알브레히트. 지젤은 바틸드가 입은 옷이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고 혼절하면서 1막을 절정을 맞는다. 이후 묘지에서 벌어지는 연적 간의 결투나 슬픔에 잠긴 지젤의 광기는 기존의 작품과 배경만 바꾼 정도다. 2막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유령 공간으로 설정했다. 원작에서 '윌리들의 숲'을 이루는 군무를 산업 재해로 인해 죽은 자들의 춤으로 바꾸었다. 2막은 지젤의 죽음을 맞이한 알브레히트의 내면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정렬들의 여왕 격인 미르타(스티나 쿼아제부아)나 힐라리온의 역할이 고전과 대동소이하고, 생과 사를 넘어 재회하는 지젤과 알브레히트의 관계 역시 고전 속의 절박함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대 배경에 세워진 거대한 벽이 돌아가는 설정은 연인의 사랑이 막혔다 소통하는 것임을 초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 아돌프 아당의 음악을 토대로 빈첸초 라마냐가 편곡을 맡았지만, 음악은 반복되는 기계음과 소음, 쇳소리와 거친 소리로 인해 오히려 재창작했다 할 수 있겠다. 중간마다 아당의 메인테마가 드문드문 고개를 들기도 한다. 주요 출연진은 영국국립발레의 수석 무용수들. 지젤 역의 타마라 로호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 동안 영국발레단에 몸을 담근 산 증인이다. 그녀는 2012년부터 영국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도 재직 중이다.

– 해설지(15쪽 분량 · 영문)에는 낭만발레 '지젤', 아크람 칸의 '지젤', 시놉시스가 들어가 있다.

RCO Live LP

www.concertgebouworkest.nl

CONCERTGEBOUWORKEST
RCO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RCO 19002 [LP] Vinyl (stereo, 33 1/3 rpm, 180 gr)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마리스 얀손스(지휘)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의 에너지 넘치는 연주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그의 최고의 걸작이자 가장 유쾌한 교향곡 중 하나이다. 이 곡은 그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미국의 민요와 흑인영가, 그리고 인디언의 음악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지만 드보르작은 위대한 예술적 감각으로 온 인류가 감동하고 즐기는 음악을 만들었다. 특히 유명한 목가적 선율의 2악장과 영화 〈죠스〉의 주제음악이 사용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4악장은 언제 들어도 신선하다. 오늘날 최고의 지휘자인 마리스 얀손스와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으로 공인된 RCO의 에너지가 넘치는 연주라면 더욱 그러하다.

'The result is magical, particularly in the slow movement, where the orchestra's unrivalled string section is inspired to playing of breathtaking refinement'
- *Gramophone*

'This recording shows that the Union between Mariss Jansons and the Royal Concertgebouw is a marriage made in heaven'
- *The Daily Telegraph*

'full of textural subtlety, with wonderful gradings of dynamics and phrasing, and a slow burning intensity'
- *The Guardian*

[LP 수록곡]

Antonín Dvořák, Symphony No. 9 'From the New World'

Side A

1.	Adagio - Allegro molto	09:26
2.	Largo	11:57

Side B

1.	Scherzo. Molto vivace	08:01
2.	Allegro con fuoco	11:54

Total playing time 41:20

베토벤에 이어 차이콥스키에서도
어김없는 카리스마

ARTHAUS MUSIK
DVD VIDEO

2017/18 바스티유 실황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실황
[3DVD + 3Blu-ray]

필리프 조르당_ 지휘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109378 [3DVDs] 109379 [3BDs]

2009/10 시즌부터 파리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조르당(1974~)이 파리 바스티유에서 선보인 **차이콥스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물**로 **교향곡 1번과 5번**(2017 10월), **교향곡 2번과 4번**(2018년 3월 27일), **교향곡 3번과 6번 '비창'**(3월 15일) 실황을 담고 있다.
조르당은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기량을 파리 오케스트라 같은 콘서트 전문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14/15 시즌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영상물(Arthaus Musik 109248)을 통해 조르당의 특유의 사운드와 예술적으로 연출된 미장센에 감탄한 이라면 이 영상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조르당이 영어와 독일어로 구사한 인터뷰는 각 작품 해설은 물론 차이콥스키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를 살펴본다.
53쪽 분량의 해설지는 영 · 독 · 불어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사진
세상의 모든 음악 10집
'저녁이 꾸는 꿈' CD

〈아울로스뉴스〉 2019년 4월호
통권 제 79호 발행 2019년 4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전화 02-922-0100(代)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